



해외한인장로회 제39회 총회가 풀러튼장로교회에서 13일부터 15일까지 열리고 있다.

세계복음선교연합 총회장에 임성진 목사

제 28차 총회 OMC에서

세계복음선교연합회(WEMA, World Evangelical Mission Alliance) 제28차 총회 및 선교대회가 13일부터 16일까지 동양선교교회(박형은 목사)에서 나흘 동안의 일정에 돌입했다. “땅 끝까지 증인되는 교회”(행1:8)란 주제로 열린 총회 개회예배는 사회 남종성 목사(LA디사이플스교회, 부총회장), 한도수 직전 총회장의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란 제목의 설교, 축도 임동선 목사(증경총회장)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임원선거에서는 총회장에 임성진 목사(월드미션대학교 부총장), 목사 부총회장에 박형은 목사(동양선교교회), 남종성 목사(LA디사이플스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한승수

장로, 김영광 장로, 총무에 이흥주 목사(월드미션대학교 교수)가 각각 선출됐다.

이번 선교대회에서는 새벽기도회, 사모 세미나, 목사 안수식, 남미와 유럽의 밤, 아시아 중동의 밤, 평신도 세미나, 아프리카 유라시아의 밤 등 각종 세미나와 모임이 다채롭게 준비됐다. 특히 전주안디옥교회의 이동휘 목사가 초청돼 매일 밤 부흥회를 이끌게 된다.

세계복음선교연합회는 1987년 7월 11일에 LA동양선교교회 임동선 목사를 중심으로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를 이루기 위해 창립됐으며, 현재 미국을 비롯한 중남미와 유럽 등지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와 세계 30여 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로 구성돼 있다. 토마스 멩 기자

KPCA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

총회장 노진걸 목사, 부총회장 김종훈 목사·박순태 장로

해외한인장로회(KPCA) 제39회 총회가 “빛의 자녀와 빛의 열매”(엡 5:1-14)를 주제로 13일 풀러튼장로교회에서 개최됐다.

첫날 오후에 치러진 임원 선거에서 직전 부총회장인 노진걸 목사(풀러튼장로교회)가 관례대로 총회장에 추대됐으며, 목사 부총회장에 김종훈 목사(뉴욕에일장로교회), 장로 부총회장에 박순태 장로(조이기독교백화점)가 각각 선출됐다.

노진걸 목사는 취임사를 통해 “하

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실히 일하겠다. 많은 기도와 격려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총회 재판과 행정 지시를 거부한 서북노회의 총대권 박탈과 관련해서는, 총대들의 가부를 물어 총대권을 박탈하기로 가결했다.

한편, 13일 오후 2시에 열린 개회예배는 사회 노진걸 목사, 기도 이대연 장로, 성경봉독 김종훈 목사, 설교 호성기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설교를 통해 호성기 목사는 “우리

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며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해외한인장로회의 선교적인 비전을 구호로만 외치지 말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자”고 강조했다.

이날 내빈으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측) 총회장 김동업 목사와 장로교군목추천협의회 에드워드 브로건 목사가 참석해 인사말을 전했다. 토마스 멩 기자

자녀들 친부모와 살 때 가장 안정적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7일 발표에 따르면, 두 명의 친부모 밑에서 자라는 자녀가 트라우마를 발생시킬 만한 부정적 사건을 가장 적게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조사는 0세부터 17세 사이의 자녀가 있는 9만5677개 가구를 대상으로 두 명의 친부모와 사는 경우, 한 명의 친부모와 사는 경우, 친부모 없이 사는 경우로 나누어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9가지 부정적인 경험 중 자신의 가정이 겪은 일을 선택했다. 이 9가지는 부모나 보호자의 이혼 혹은 별거, 죽음, 투옥, 가족 중 누군가가 자살

동, 우울증 등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알코올이나 약물에 중독된 경우, 가정 폭력을 목격한 경우, 폭력에 희생되거나 이웃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 인종차별을 당한 경우, 경제적으 생계 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이었다.

두 부모의 돌봄을 받는 자녀들 중 무려 70%는 위의 9가지 경험을 단 한 가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 부모의 돌봄만 받을 경우는 21.7%만이 그러했으며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18.7%만이 그랬다. 9가지 부정적인 경험 중 4가지 이상을 겪은 경우는 두 부모가 돌

보는 경우 0.9%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부모의 경우 13.6%, 부모의 돌봄이 없을 경우는 29.9%로 매우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문별로 봤을 때에도 보호자가 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두 부모의 경우는 1.9%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 부모의 경우는 13.3%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29.2%로 무려 두 배 수준이었다.

이 조사에서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자녀들은 고아원이나 위탁가정에 거주하거나, 조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과 거주하거나, 조부모와 또 다른 누군가와 거주하거나, 기타의 경우 등이었으며 입양된 경우는 이 조사에서 제외됐다. 김영신 기자

인랜드교회 설립 30주년 맞아 “회복자 사모 힐링캠프”

‘회복된 사모, 행복한 목회’ 주제로

남가주 포모나에 위치한 인랜드교회(담임 박신철 목사가 올해로 설립 30주년을 맞아 ‘감사와 섬김’이라는 주제로 여러 가지 기념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그 중 첫 번째가 7월 13일(주일)부터 15일(화)까지 남가주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담임목회자의 사모들을 위한 “회복된 사모, 행복한 목회”라는 주제의 목회자 사모 힐링캠프이다.

많은 성도들은 사모들을 독립적인 인격체로 인식하기보다는 목회자의 사모로서 목회자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모들은 나이와 고하를 막론하고 교회에서도 돌보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

그럼에도 성도들과 아픔이나 외로움을 나눌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쉽지 않은 이민 환경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떠안아야 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보게 된다.

이 행사는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며 고된 사역 속에 지쳐있는 개척교회 사



황순원 원장

모들을 위로하기 위한 행사이다. 쉽고 회복이 행복한 목회를 이끄는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이다.

강사로는 CMF가정선교원 황순원 원장을 모신다. 황순원 원장은 세계 최초로 사모를 위한 전문상담센터를 개설하여 사모들의 안내자로, 또 사모를 섬기는 사모로 잘 알려져 있다.

숙식과 모든 행사의 비용은 무료이다. 참가신청은 5월 31일까지이며 참가신청서는 인랜드교회 웹사이트(www.inlandchurch.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랜드교회는 8월부터 10월까지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며 서툰 삶이 된 청년의 열정으로 섬김을 실천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문의: 714-876-8812(문성진 목사) 이혜진 기자

ASO **나라정비** 타이어 대리점
나라오토센터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 토: 8am~5pm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GOOD 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Chmi 기독교의료상조회 CHRISTIAN MUTUAL MED-AID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세계성경장로교회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권능 충만
임복만 목사 초청 춘계 말씀 축제
주제 : 회복과 부흥 and 오직 성령으로

임복만 목사 (청주 원동교회 담임)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실무회장 역임
 감리교 전국부흥단 전임단장 역임
 미국 코헨대학 국제(79개국)부총장
 C.U.T.S 한국학술원장
 현 청주원동교회 개척담임

하가님의 귀한 말씀 축제에 너무나 귀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임복만 목사님과 함께 만나시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실 것 입니다. 초대합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25일(주일) 오전 11시 겐 37:7~10 "오직 성령으로"
 26일(월) 오후 7시 30분 고전 1:10~17 "교회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27일(화) 오후 7시 30분 고전 12:4~11 "은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28일(수) 오후 7시 30분 골 3:23 "봉사를 올바르게 이해하자"

World Bible Presbyterian Church | 17002 Prairie Avenue, Torrance, CA 90504 | T. (424) 257 - 8169 C.P (562) 761 - 5242
www.wbpc.usa.com | drpaulkang@hotmail.com

로고스선교회 남가주지회 개관



시카고에 본부를 둔 로고스선교회가 남가주지회를 개관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선교회 관계자 및 주요 하객들이 기념촬영했다.

38년간 문서선교회 의료상조회, 쉼터 사역을 감당해온 로고스선교회(대표 박도원 목사)가 지난 10일(토) 오전 11시에 남가주지회 개관예배를 드리고 힘찬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에는 축하객 100여 명이 참석해 기쁨을 나눴다.

김경호 목사(로고스선교회 본부장)의 사회로 열린 예배는 이인범 목사의 대표기도 후, 이정근 목사(미주성결대 명예총장)가 설교를 전했다. 이정근 목사는 사도행전 12장 9절-12절을 본문으로 “문이 저절로 열리는 지라”라는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

다”며 “베드로가 있던 감옥에서 저절로 닫힌 문이 열린 역사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문을 여시는 분이므로, 닫힌 문을 여시면 다시 닫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원준 지부장(기독교의료상조회 남가주지회)이 로고스선교회의 사역 소개와 함께 연혁을 보고했다.

격려사를 전한 강형길 목사(전 백코믹신학교 교수)는 “하나님께서 귀한 때에 스스로 문이 열리게 해 주신 축복이 로고스선교회에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답사를 전한 박도원 목사는 “너무나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와 여러 동역자들의 헌신과 기도로 사역이 커졌다”며 “인간의 명예와 욕심을 내려놓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예배는 허영진 목사(미주한인장로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로고스선교회는 지난 1976년에 창립돼 크리스천저널을 통한 문서선교, 크리스천을 위한 의료나눔사역기관 기독교의료상조회, 샌디에고 라모나쉼터 기도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문의)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888-777-8226(ext.3202)
토마스 맹 기자



미주한인재단이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토드 로저스 후보가 인사하고 있다.

“토드 로저스를 LA 셰리프 국장으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 국장에 출마한 토드 로저스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이 미주한인재단 주최로 한인타운에서 열렸다. 로저스 후보의 미주한인후원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원 장로(미주한인재단 전국총회장)는 “로저스 후보는 셰리프 부국장으로 커뮤니티에서 가장 존경받는 법집행 전문가”라고 말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로저스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한인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으며 임기수 목사(세계예수선교회), 이천용 LA카운티 커미셔너 등이 참석해 후원과 지지를 약속했다.

6월 3일 치러지는 셰리프 국장 선거에는 약 7명의 후보가 출마한 상황이며 박효우 남가주교협회장은 제임스 헬몬드 후보를 지지한 바 있다.

토마스 맹 기자

청주힌들교회 임복만 목사 부흥회

청주힌들교회를 개척해 담임하고 있는 임복만 목사가 세계성경장로교회(강신권 목사)에서 “회복과 부흥 그리고 오직 성령으로”라는 주제 아래 부흥회를 개최한다. 25일 주일 오전 11시, 26일과 27일 오후 7시 30분, 28

일 오후 7시 20분에 각각 집회가 있다. 임 목사는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실무회장, 약리교전국부흥단 전임단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코헨대학교 국제부총장, 코헨대학교 한국학술원장 등을 맡고 있다. 문의) 424-257-8169

살롬장애인선교회, 어버이날 맞이 경로잔치 열어



이 잔치를 마치며 박모세 목사가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살롬장애인선교회(대표 박모세 목사)가 15년 째 열고 있는 경로잔치가 6일 정오에 LA 만리장성 식당에서 열렸다.

이날 65세 이상 되는 어르신 30여 명이 참석해 선물을 받고 점심식사와

교제를 나누었다. 박모세 목사는 마태복음 12장 46-50절까지의 본문으로 설교를 했다. 박 목사는 “요즘 한국에는 노인들을 경시하는 문화가 있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노인들을 잘 대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선교회는 해외 장애인들을 돕지만, LA의 한인 노인들도 섬기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선교회는 해외의 불우 장애인들에게 휠체어를 선물하기 위한 후원음악회 ‘휠체어 사랑 이야기’를 오는 7월 13일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이 단체는 1999년 설립 이래 현재까지 8517대의 휠체어와 기타 의료보조기구 36814점을 한국과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등에 보냈다.

문의: (323)731-7724
토마스 맹 기자

남가주기독교장교회 가정의달 모임 열어



기독교장교회의 이기홍 목사가 가정의달 모임에서 설교를 전하고 있다.

남가주한국예비역기독교장교회가 지난 10일 오후 12시에 미주복음방송 4층에서 가정의달 모임을 열었다.

이날 최훈일 회장의 인도, 세월호 사건으로 상처를 안고있는 조국을 위해 대령 출신인 문대룡 목사의 기도,

이기홍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다. 미주복음방송과 기독교장교회 설립자인 임종희 목사가 이 모임을 위해 점심을 제공했다. 이후 정영화 장로의 특강이 진행됐다.

토마스 맹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바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 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라한의원)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혼자 산을 오르는 것보다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홀로 가기에 너무나 험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험한 산도 넘을수 있습니다.

올림픽성로교회

**설립22주년 및
이전감사예배**

6월 15일 오후4시

설교: 박의민목사
축사: 박진옥목사(복음방송)
축사: 김준근장로(JAIMA)
인사: 송 Jason교장 (새연약교회)

담임: 정장수목사

5월 18일 첫예배

“우리교회 이사했어요” 6th & Shatto (벌몬 한블락 동쪽)

주일예배시간: 1부 8:30, 2부 11:00
금요기도 저녁 9:00 / 새벽기도 5:30(월-금)

3119 W. 6th St. L.A. Ca 90057
(213) 387-1700 www.olympic-church.org

목회는 인프라와 환경만으론 안돼

제2회 “목회자 사랑해요” 소명 컨퍼런스 열려



목회자들을 섬기는 ILP 소명 컨퍼런스에서 박종렬 목사가 강의하고 있다.

제 2회 ILP(I Love Pastor) 소명 컨퍼런스가 1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에서 열렸다. 이 컨퍼런스는 이름 그대로 ‘목회자를 사랑하자’라는 취지 아래 교파를 초월해 평신도들이 주최하고 있다. 12년 전 한국과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2013년까지 12년 동안 매년 한국의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특수교회에서 사역하는 목회자들을 미국에 초청해 9박10일간 섬기며, 미국교회 탐방, 세미나, 서부지역 관광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또한 한국의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의 목회자들도 대상이 돼 세미나를 열고 한국에 안식년 차 방문하기도 한다.

이번에 미주 목회자들을 초청해 “다시 근본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컨퍼런스 강사에는 박종렬 목사(서울 조이아스교회 담임), 이 조나단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이현수 목사(톨라드말씀공동체), 최경욱 목사(또감사선교교회 담임)가 나섰다.

오전에 강의를 한 박종렬 목사는 중생의 체험에서부터 지금까지 사역을 해 오면서 느낀 바를 강조했다. 박목사는 “처음에 성령체험을 했을 때 보혈의 능력이 온몸으로 체험되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였다”며 “소명과 관련하여서는 개인적으로 신학적인 정리보다는 무엇인가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움직이는 영적인 힘이라 생각한다. 내 안에 감동이와 인생을 바꾸어

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역을 해 오면서 안되는 것이 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을 깨달았다. 목회를 너무 고민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은사, 기지, 성향을 총동원해서 하다보면 무엇이 안되는 가운데서 되는 점점을 하나님이 찾아주신다”고 밝혔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라”는 메시지를 계속 접한 후 대형교회와 안정된 직장을 내려놓고 개척에 나섰다. 박목사는 “위기가 올 때마다 사회 생활을 해 오면서 몸에 밴 대안을 생각했다. 사람부터 키우자는 생각이 먼저 들어 사람을 키워 강사로 세웠더니 그 사람이 모델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기 시작했다”며 “목회는 인프라가 갖춰져도 정말 안되는 일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목회의 돌파구는 기도밖에 없다”고 했다.

또 평생 목회를 하면서 주의할 점에 대해, “목회자는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한다. 결국은 ‘돈’과 ‘성’의 문제에서 잘못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음란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탁월한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은사가 꺾기면 하나님께서 쓰기 어렵다. 회개하면 용서는 받는데 사역적 힘을 쓰지 못한다. 목회는 불같은 열정만으론 안된다. 대안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할 때 그중에 하나를 하나님께서 주신다. 목회는 인프라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의 문제라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토마스 맹 기자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또감사선교교회가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고 있다.

또감사선교교회 10주년 기념 임직식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올해 10년을 맞은 또감사선교교회(최경욱 목사)가 장로 및 안수집사 임직예배를 11일 오후 3시에 드렸다.

임직예배는 사회 최경욱 목사, 기도 찰스 김 목사(북미주개혁장로회 KMC), 설교 박동건 목사(북미주개혁장로회 전 KMD), 임직자 서약, 교인 서약, 안수기도, 안수패 증정, 축사 강준민 목사(새생명비전교회), Syd Sybenga(북미주개혁장로회 GLA 노회 ML), 격려사 주인석 목사(북미주개혁장로회 South 노회 ML), 김경언 선교사(또감사선교교회 파송선교사), 축도 최찬영 선교사(해방 이후 최초 선교사) 순으로 진행됐다.

격려사를 전한 주인석 목사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

기 바란다”며 “먼저는 목회자와 팀을 이뤄야 한다. 설령 목회자의 허물이 보이더라도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또 사역을 하면서 재미와 보람이 있어야 하는데,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한다고 생각되면 사역이 재밌다”고 말했다. 이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께 칭찬 받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담임인 최경욱 목사는 “(교회를 설립한지) 10년이 지나면서 모든 직분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장로 8명, 안수집사 7명 등 총 15명이 임직 받았다.

토마스 맹 기자

한부모 가정 위한 섬김의 축제



18회째 계속되고 있는 한부모 축제는 남가주 지역의 싱글 가정들을 위로하는 행사다.

5월 가정의 달이 더욱 외로운 한부모 가정을 위한 축제가 5월 18일 맘스 홈 부근 클럽하우스에서 열린다. 이 축제는 이혼가정 혹은 사별가정을 초대해 위로하는 행사로 예배, 만찬, 간증, 레크리에이션 등이 진행된다. 또 이 행사와 함께 수공예품 전시도 진행돼 장학금과 격려금이 지급된다.

한부모 축제는 1997년 이래 싱글 가정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목적으로 매년 이맘때 개최돼 올해 18회를 맞이했다. 올해 행사에서는 한부모 가정을 위로함과 동시에 이 행사를 시

작하고 지금까지 이끌고 섬겨온 서니 송 교수(달빛신학교)와 송인권 장로에게 감사를 전달하는 시간도 마련된다.

맘스홈 대표이자 한부모 가정의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순주 권사는

“지난 20여년 간 외롭게 아파하며 힘든 하루하루를 하고 있는 한부모 가정을 부모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아 준 송 교수님과 그 남편인 송 장로님의 섬김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문의 : 714-287-2458



아버지날을 맞이해 실버아카데미가 신바람 행복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실버아카데미 신바람 행복 효도잔치 개최

오렌지카운티에 위치한 실버아카데미(원장 박소건 목사)가 지역 어르신들을 초청해 신바람 행복 효도잔치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아버

래로 시작해 특별 공연과 레크리에이션, 점심시간과 친교시간으로 구성됐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다. 김나래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앞선

“친절하게 웃음으로 상담에 응합니다.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믿을 수 있는 농협 한삼인 창고대 방출

농협 고려인삼 한삼인 서부총판 1-866-902-8282 www.korginseng.com

LA 지점: 3130 W Olympic Blvd #120 LA CA 90006 | 1701 W Orangef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323.737.8888 (내선번호: 400) | T.213.453.6624 (아이싱마켓일군)

홍삼순액

100%홍삼농축액

100g 소비자가격	\$90	240g 소비자가격	\$185
2개 구입시	\$150	2개 구입시	\$370
3개 구입시	\$180	3개 구입시	\$320
4개 구입시	\$230	4개 구입시	\$450

30포 \$120 | 60포 \$180 | 90포 \$255 | 120포 \$320

정재를 목사 초청 하늘 문이 열리는 말씀능력 부흥성회

주제 : 백배 축복의 성경적 원리 (열고 닫는 원리, 맺고 푸는 원리, 심고 거두는 원리)

- 혹 백배, 혹 육십배, 혹 삼십배 결실을 하였느니라(마13:8)
-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에 백배나 얻었고...(창26:12)
-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금세에 백배나 받되...(막10:29~30)
- 백배 축복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성경적 원리입니다



정재를 목사 (백배축복선교회)

대신대학교 신학과 졸업
영남대학교 경영학 및 심리학과 졸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졸업
종합병원, 복음간호학원 강사 및 원목(18년 역임)
백배축복선교회 대표(청소년 및 직장인 훈련강사)
백배축복비전스쿨(성경적 축복원리)세미나 강사
동번제일교회 담임목사
(1급기독교상담사, 가정상담사, 도형상담사, 웃음치료사, 내적치유사역자, 사회복지사)
해외100개교회건축비전 - 현재 33개교회 건축 중

“한우리 장로교회에서 **당신**을 초대합니다.”

- 5. 23(금) 오후 7:30(특별찬양 : 노형건 선교사)
- 5. 24(토) 오후 7:30
- 5. 25(주일) 오전 11:00

한우리 장로교회

담임목사 강 지원 Rev. Won Ji Kang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 - 6709
E. kangkang862@gmail.com

초등학교에서 “성경 읽지 마! 기도하지 마!” 논란

학교측, 여론화되자 입장 바꿔

플로리다의 5학년 학생이 교내 자유 독서 시간에 성경 읽기를 금지당했으나 이에 끝까지 항의해 결국 학교가 두 손을 들었다.

브로워드카운티 내 파크레이크스 초등학교에 다니는 지오바니 루베오 군은 4월 초 자유 독서 시간에 성경을 읽으려 했으나 교사가 이를 제지했다. 그러나 루베오 군은 교사의 제지에 이의를 제기하며 계속 성경을 읽었다. 교사가 성경책을 책상 위에 올려 놓으라고 명령했지만 그는 여전히 듣지 않았다. 교사는 학교가 지정한 커리큘럼 내에 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루베오 군의 아버지는 이 문

제를 수정헌법 1조의 신앙 자유 문제로 인식해 아들이 선택하는 책을 읽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학교는 학생이 수업 전, 방과 후, 점심시간에만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여론에 크게 비화되자 학교 측은 “우리는 학생들이 종교적 소지품을 갖고 등교할 권리를 존중한다”면서 “자유 독서 시간에도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었다.

한편, 플로리다의 세미놀카운티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캐럴튼초등학교의 5세 학생이 점심을 먹기 전에 기도하려 고개를 숙이자

학교 직원이 이를 제지한 사건이다.

이 학생이 “기도는 좋은 것이잖아요”라고 항변하자 이 직원은 “기도는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갈등이 일자 학교 측은 “학생에게 기도할 권리가 있다”고 공식 답변했다.

그러나 현재 미국 내에서는 정교 분리라는 명목으로 기독교가 역차별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미주 한인들 가운데 종교자유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한 경우가 있다면 태평양법률협회의 한 담당자인 주성철 목사에게 연락하면 무료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문의 : 714-640-7471

김나래 기자

사탄 숭배자들

하버드대학에서 미사하려다 무산



검은 미사 행사를 알리는 포스터의 일부

사탄을 숭배하는 단체인 사탄 템플(Satanic Temple) 재단이 12일 사탄 숭배 제사인 ‘검은 미사(Black Mass)’를 하버드대학교 심장부인 The Queens Head Pub in Memorial Hall에서 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무산됐다. 6만여 명이 참가한 반대서명 운동 등 반대여론에 밀려 결국 행사를 취소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됐다.

검은 미사는 일반적으로 드리는 가톨릭 미사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사탄(루시퍼)을 숭배하는 것이다. 미사 도중 인신제사와 음란한 의식, 신성모독적이고 끔찍한 퍼포먼스가 동반된다.

앞서 사탄 템플은 포스터 광고 등을 통해 “사탄을 숭배하는 검은 미사를 하버드대학교 캠퍼스에서 재현한다”고 알리고, 이에 대한 학문적이고 역사적인 해설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 측은 “우리의 목적은 어떠한 신앙이나 종교도 폄하하지 않고, 교육적인 목적에 따라 이를 존중하여 다른 문화의 역사를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한 오클라호마 주 청사 앞에 세워진 심계명 동상 옆과 다른 공공장소에 바포멧 조각상을 설치하고자 시도

하고 있다. 바포멧은 사탄 템플 측이 섬기는 신을 형상화 한 것으로, 이들이 악마를 숭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 상징이다. 1966년 세워진 사탄 교회는 오만성 안에 그려진 바포멧의 머리를 공식 인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톨릭교회 보스턴 교구는 성명을 통해 “하버드대학교에서 검은 미사를 하는 데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반대 의사를 밝힌다”며 “성도들은 하버드대학교와 관계자들이 이번 행사를 개최하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미국 교계 안팎에서는 “미국은 이미 청교도의 신앙을 잃어버린 단계를 지나 급격히 사탄을 숭배하는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버드대학교는 영국 출신의 청교도 존 하버드 목사가 17세기에 설립한 미국 최초의 대학으로 최고의 엘리트 교육기관이다. 이런 곳에서 공개적으로 사탄을 숭배하는 검은 미사를 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겠다고 하는 세력들이 등장한 것 자체가, 미국 기독교의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강혜진 기자

휴스턴 시 “여성 옷 입은 남성, 여성화장실 사용 권리” 조례

텍사스 주 휴스턴 시에서 여장을 한 남성들이 여성 화장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례가 시장에 의해 발의돼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남성일지라도 여성의 의복을 입고 있다면 여성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며 만약 그들의 출입을 제지할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 조례를 발의한 에니스 파커 시장은 23년간 동성 파트너와 동거하다 동성결혼이 합법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올해 1월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가 결혼할 당시 텍사

스 주에서는 동성결혼이 불법이었지만 현재는 연방지방법원이 이를 합법화 했으며 항소법원이 재판 중에 있다.

이 조례는 캘리포니아 주의 AB1266과 대동소이하다. 남여화장실 공동사용법인 AB1266의 경우는 생물학적 성별, 외형적 성별과 관계 없이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할 경우에 어느 성별의 화장실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이에 비해 휴스턴 시의 조례는 모든 사업체에서 남성 고객이 여성의 옷을 입고 있다면 여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캘리포니아 주의 법은 자신이 생각하고 말하는 내용에 근거해 성별을 구분하며, 휴스턴 시의 조례는 입고 있는 의상에 근거해 성별을 구분하겠다는 것이지만, 누군가 불순한 의도나 범죄 목적으로 이 규정들을 악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수의 사생활 침해에 대책은 없이 오히려 이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파커 시장은 이 법을 차별금지법으로 규정하고 의회에 통과를 압박하고 있다.

파커 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휴스턴 지역의 대표적 교회인 제이침례교회의 에드 영 목사,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의 스티브 리글 목사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3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AB1266의 주민 투표가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주 정부가 과도하게 유효 서명을 탈락시켰다는 의혹이 일면서 재검토 문제를 놓고 소송이 계속 진행 중에 있다.

김영신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각,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인규 편집국장 : 토마스 맵
고문변호사 : 정찬웅
지사장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쇼스피드 다이어트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하머니크림 (습윤크림)

- 임신 중 튼살 방지
- 건선으로 인한 붉은 주름(얼굴, 목)
- 트고 갈라진 피부 보습(발 뒷꿈치)
- 치질(항문하혈, 통증)
- 독소제거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불임증(자궁축, 하혈)
- 우울증
- 관절염
- 원형탈모
- 구연산 캡슐

치아미백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배는 속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한국어: 213.380.7800
영어: 213.380.6868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10시~5시 / 토 10시~2시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i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Q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Ph.D

Good News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We are fully accredited by ATS and a member of GTU.
absw.edu (Established 1871)

Doctor of Ministry Program
목회 학 박사 과정 학생 모집
Los Angeles 에서 6월 16일 개강 (장학금 지급)
We will have two seminars (3 Units each, Monday - Friday):
June 16th through 20th, 2014: Church Growth
Professor: Dr. Hyo shick Pai (9:00 am - 5:00 pm)

June 23rd through June 27th, 2014: Leadership in Urban Ministry
Professor: Dr. Youngil Kim (9:00 - 5:00 pm)

Location: The First Baptist Church (Los Angeles Extension Campus)
760 S. Westmoreland Ave. L. A. CA 90006
<좋은 학교: 신입생에게 장학금 \$1,000불 지급>

Contact Persons
Dr. Hyo Shick Pai, Administrator (분교장)
(661) 755-5442 drhyopai@gmail.com

Visiting Professors for Church Growth Seminar
Dr. Chunil Cho
Dr. David Bang

Dr. Paul Martin: President
Main Campus: 2606 Dwight Way, Berkeley, CA 94704

Approved by Dr. LeAnn Flesher, Dean and Dr. Sam Park, Director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네바다 주 리노에 위치하고 있는 본 리노영락 교회는 다음과 같이 담임목회자를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M.Div.)을 졸업한 목회자로서 해외 한인 장로회(KPCA)소속 혹은 가입이 가능한 3년 이상 목회 경험과 2세 교육에 사명감과 VISION을 가지신 분.
2)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서류
1) 이력서(최근 본인 및 가족사진 포함)
2) 본인 소개와 신앙고백서 및 목회 소견서
3) 목사 안수 증명서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일반 대학 졸업 증명서(optional)
5) 추천서 : 목사 2명 및 장로 2명
6) 최근 설교 CD 혹은 DVD 2개

III. 제출 마감일 : 2014년 5월 23일

IV. 제출처
서류제출처 : Eld. Seung B. Park(청빙위원장) 120 Continental Drive Reno, NV 89509
교회주소(참고) : RENO YOUNG NAK CHURCH
3102 Skye Terrace Sparks, NV 89431
Email: sbparknv@yahoo.com

V. 기타
1)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치 않음.
2) 서류심사를 통과한 분들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3) 서류 마감일자 후 10일 안에 서류심사를 통과 한분들에게 E-Mail로 연락 드림.
4) 전화 문의는 사절함.
5) 서류제출은 Certified Mail로 보내주시고 E-Mail로 확인 해주시길바람.

리노 영락 교회 목회자 청빙 위원회

네 종류의 가정



김영길 목사
감사한인교회

세 번째로 “결손가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이라면, 부모와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의의 사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족 중 누군가의 자리가 비게 되었을 때, 우리는 결손가정이라고 부릅니다. 결손 가정에는 아무도 그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없는 슬픔이 있습니다. 한 쪽 다리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쪽 다리만으로 걸어보신 분은 그 뜻을 아실 것입니다. 돌이 나누어져야 할 집을 혼자 짊어지기 때문에 여유가 없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부족함을 채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다 보면, 오히려 부족함 속에서 감사가 넘

치게 됩니다. 아마도 이런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이 될 것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네 번째로 “아름다운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의 특색은 “명랑함”입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감사가 있고, 가족 중 누군가의 부족함이 드러나면 격려와 위로로 채우며, 작은 성공의 열매에도 함께 박수를 치며 즐거워하는, 학교 수업과 회사의 일이 끝나면 “얼른 집에 돌아가고 싶은” 그런 가정입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이면 온 가족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아마도 이런 가정에는 하박국 3장 17-18절 말씀이 적격일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마음을 바꾸면 새로워집니다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해롤드 라미스 감독의 영화 <Groundhog Day>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방송국 기상 캐스터인 필은 유능한 방송인이라고 자부하지만 ‘왕자병’이 증증입니다. 그는 작은 마을의 ‘봄축제(Groundhog Day)’를 취재하라는 지시를 받고 투덜거립니다. 취재를 할 때도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었고, 그렇게 하루를 보내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하루가 지났는데 다음날도 똑같은 축제의 날인 것입니다. 같은 사람을 만나고 같은 방송을 또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도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에 지친 필은 자살을 시도하지만 죽음도 반복되는 일상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거의 미칠 지경이 된 뒤에야 필은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이왕 보내는 동일한 하루라면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방송의 멘트도 긍정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평소 좋아하던 PD 리타에게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난 후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드디어 다른 새 날이 찾아 온 것입니다. 만화 같은 영화이지만 사람들의 현실 속에 숨겨진 권태와 불만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러나 이 영화에서 이야기하는 교훈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나 자신의 변화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가짐과 묵묵히 충실한 자세로 일할 때 우리에게 희망찬 내일이 찾아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따지고 보면 어제와 별다르지 않은 날이지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일하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는 예배가 은혜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

리의 마음 자세가 예배 속에서 은혜를 도출해 내는 것입니다. 예배가 가져오는 축복은 내가 얼마나 변화를 추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며 참여한 예배는 감사와 감격을 가져 오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단순한 청중이 아닙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를 주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배자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왕 드리는 예배라면 이전의 예배와 다른 마음으로 드리면 어떨까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예배는 분명 은혜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평상시와 달리 찬양할 때 손을 들어 찬양도 해봅시다. 설교가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서는 아멘으로 화답해 봅시다. 성경봉독할 때도 평상시보다 조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을 향해 미소를 띄어 봅시다. 다음 주일예배는 15분 정도 일찍 나오겠다는 마음을 가져봅시다. 분명 감동의 예배가 경험될 것입니다. 좋은 예배는 좋은 환경, 좋은 찬양, 좋은 설교, 좋은 분위기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예배자의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담긴 예배 순서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리고 교독문을 통해 성도들과 하나님은 주거나 받거나 대화를 시작한다. 대화가 끝나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고 이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드린다. 그러면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향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설교이다. 그런 후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겠다는 헌신을 다짐하는 찬양을 드리고 다시 한번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는 헌금을 드린다. 헌금은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하고 주를 더욱 더 의지하여 오직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자 선포이다.

그러면 그 믿음의 고백을 받은 주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새 힘을 주신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저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한다. 이것이 축도이다. 예배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성도들이 서로 교통하고 대화하는 신령한 만남의 시간 이요 축복의 시간이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내용과 의미를 담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들에게는 복이 되는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문이다. 전통예배가 진부해 보이는 것은 그런 예배 순서에 대한 이해 없이 그저 순서를 반복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성도들이 전통예배의 순서가 가지는 의미를 늘 마음에 새기고 예배에 임했으면 한다. 예배는 묵도 또는 예배예의 부름으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우리 예배의 시작이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다는 의미이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그러하듯 예배도 하나님의 부름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끝난다. 묵도 혹은 예배예의 부름을 통해 예배에 들어온 성도들은 먼저 그 하나님 앞에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다.

물론 그 신앙고백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

예배는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른 말로 예배자라고 부르기도 한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를 예전에는 예배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런 까닭에 각 교회의 예배 순서에는 그 교회가 지닌 신앙고백과 신앙의 특징이 담겨있다.

젊은 예배를 제외한 우리 교회의 예배 순서는 대체로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많이 따르고 있다. 요즘은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묵도, 신앙고백, 교독문 등을 예배 때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나 우리 교회의 예배는 이런 전통적인 예배 순서를 그대로 지켜나가고 있다.

한동안은 미국과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시대의 흐름을 따른다는 뜻으로 전통적인 예배 순서보다는 좀더 단순하고 개방적인 형태의 예배 순서를 선호한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 중의 하나는 이렇게 단순하고 현대적인 예배 순서를 좋아했던 교회들이 조금씩 전통적인 예배로 돌아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바람직한 현상이라는 생각이다. 전통적인 예배의 형식이 다소 진부해 보이는 면은 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역사를 통해서 걸러진 신앙의 깊은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흡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기적의 영양제!

발작,자폐증,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나서 암수치 1.36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해소,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박옥현(77세)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혼전 번웅 겪고 완치됨.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215-699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올려서화생혈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되고 시력,파부,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커졌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우울증,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아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위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러지,우울증,불면증,늑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치정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배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담석,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잤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악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변비,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당뇨,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허파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중기,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셋트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퀘(뉴저지)
모유 아주적음,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변을 잘 보고 잘 자고 푹푹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좋다는 약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정도 들기가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않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짐.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었다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이야기 5

안녕하세요 건강칼럼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각 사람이 고민하고 있는 병에서 한번 먹어보는 것으로 눈이 번쩍 뜨일정도로 효과가 있는 약이든지 영양제든지 또는 다른 물질이든지 등등 기적의 제품이 있을거요에 대하여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옛날 중국의 진시왕은 중국을 통일한 후에 누구나 갈망하는 영원한 삶을 찾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 다. 그럼에도 90살을 넘기지 못하고 죽었지요. 그럼 사람은 몇살을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은120세 살 수 있다고 하라하셨습니 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육체가 된 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잘만 하면 120살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 34 장 7절에 보니까 모세의 죽을 때 나이 일백 이십 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기록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더 흥미가 있는 것은 모세는 죽을 때 노보 산에 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지요. 노보산은 사해 바다 근처에 있는 해발 800미터 산인데 120세 나이에 걸어서 그 산 정상에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 300키로미터나 되는 가나안땅을 전부 바라볼 수 있었던 시력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요? 시력은 그 사람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 진단 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열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는 주변의 뼈에서 영양분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미세한 뼈조각이 안구의 혈관을 다치게 함으로 눈이 충열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눈 주변에도 골다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 14장 27절에 요나단은 그 아버지가 맹세로 백성에게 명할 때 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끝을 찌고 그 손을 돌이켜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또 29절에 보라 내가 이 끝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끝에는 다량의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 좋은 미네랄을 드시면 몸에 흡수가 되는 순간에 곧 반응이 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합니다. 눈은 아주 민감한 곳이므로 자기 몸의 건강상태를 첫번째로 깨닫는 곳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세처럼 건강하게 요나단처럼 금방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소개해 드린다면 기적의 영양제 M3를 여러분들께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PH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그 테스트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제품은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힘든데 M3제품만이 10점 만점을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송을 시작한 이후로도 많은 분들이 벌써 큰 효과를 보셨습니다. 큰 효과를 보신 분들께서 감사의 편지와 감사의 선물도 보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믿음으로 연락주시고 기적의 선물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주는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나타내는데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으면 건강이 안 좋다고 자가 진단 하셔도 됩니다. 눈이 자주 충열되는 사람은 안구에서 영양분이 부족할 때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서인종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품 입니다. www.sellacare.com

LA 사랑방	213.351.9552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놀릭 H 마트 리빙웰스	562.402.8859
센루이스,캔사스	314.570.9629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H 마트 내 H 헬스 (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하와이 흥판	808.359.3376	H 마트 내 H 헬스 (여버인)	949.251.0193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그린랜드 건강헬스 (그린마켓 내)	626.839.2868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캐나다	714.636.2588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파이오니어약국 (세리토스)	562.402.6972
뉴서울호텔 (팔달)	213.386.5310	플로리다	954.985.3928
텍사스 (로얄백화점)	972.620.2900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교계 지도자들, “교회도 책임 통감” 금식기도회 연다

대한민국 회복 위해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서

한국교회 교단장들을 중심으로 한 지도자들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위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한국교회지도자연합 금식기도회’를 오는 5월 21일 정오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개최한다.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는 12일 오전 10시 (이하 가나다 순) 기갑 전용재 감독회장, 기성 조일래 총회장, 기침 김대현 총회장,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최길학 부총회장, 백석 장중현 총회장, 통합 김동엽 총회장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 장현일 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금식기도회 계획을 취지를 설명했다.

기갑 전용재 감독회장은 “지난 3월부터 교단장들이 한국교회 현실을 염려하며 여러 차례 모여서 좋은 사업들을 함께하자고 논의하고 있던 중, 이번 사태를 맞아 대책을 나누고 의논하게 됐다”며 “그 시작으로 21일 금식기도회를 개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졸지에 떠나보내고 시름에 잠겨 있는 유가족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하시고 부디 용기를 내어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며 “천하보다 귀한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사익을 쫓는 무리들과 이를 방조하고 자기의 책임을 방기한 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정치인들 모두 이번 참사의 책임에서 비켜설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교회의 책임도 통감하며 ▲이단으로 규정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와 건전하고 순수한 교단인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를 오해하지 말 것 ▲한국교회는 건전한 가치관을 심지 못한



기자회견 중인 (왼쪽부터 순서대로) 기하성 최길학 부총회장, 기침 김대현 총회장, 기갑 전용재 감독회장, 통합 김동엽 총회장, 기성 조일래 총회장, 백석 장중현 총회장.

것 등에 대해 회개운동을 실천할 것 ▲국회와 정부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검사제 도입 및 특별법 제정을 하고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르는 사 이비 이단에 대해 규제할 것 ▲한국교회와 정부는 희생자 추모와 유가족 위로 및 대한민국 공동체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 등을 촉구 및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 정부의 존재와 역할에 대한 심각한 회의감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에 대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위정척리는 대한민국호를 목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개교회주의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개인 및 사회구원을 함께 아우르는 균형잡힌 복을 전파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갈 것”을 강조했다. 성명에는 이날 참석한 교단장들 외에 고신 주준태 총회장, 대신 최순영 총회장, 기하성(여의도순복음) 이영훈 총회장, 합동 안명환 총회장도 참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주최 단체인 한국교회교단장협의회와 성격과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통합 김동엽 총회장은 “세월호 사건으로 국가적 위기에 처한 이 때에 기독교계가 힘을 모으자는 뜻에서 시작한

것이며, 그래서 회장이도 빠지지 않았다”며 “대형 체육관을 빌려 집회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기갑 전용재 감독회장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한국교회가 갈등과 분열로 위상이 추락된 데 대해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우선 대사회적인 좋은 일에 뜻을 같이 하는 교단들이 함께했고, 회개로만 끝나지 않고 구체적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여러 일들을 계속 같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른 교단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문을 열고 대화할 것이며, NCKC·한교연·한기총 등과도 조율하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기성 조일래 총회장은 “이번 참사는 정부뿐 아니라 교계와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교회와 정부는 성장도 중요하지만 바른 교회를 세우고 바르고 건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기도회에는 각 교단과 기관 및 도·시·군·구 기독교연합회 임원들이 참석하며, 동시에 전국교회 성도 1일 금식도 선포할 예정이다.

류재광 기자

세월호 참사 정신적 외상

지탱 목회가 필요하다

지역 목회자 및 심리상담 전문가 등 대화마당

‘세월호 참사 정신적 외상 극복을 위한 대화마당’이 12일 오전 안산제일교회(담임 고훈 목사) 가나홀에서 안산기독교연합회(회장 유재명 목사) 주최와 예장통합 세월호 참사극복지원대책 안산지역본부 주관으로 지역 목회자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대화마당에서는 심리상담 전문가들의 강연과 지역 관계자·강사진·목회자 등의 피드백 모임 등이 진행됐다.

정영택 목사(예장통합 부총회장)는 대화마당에 앞서 취지를 전했다. 정목사는 “집목은 금이고 웅변은 은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침묵이 금인 시기가 아닌가 한다”며 “용기를 보면 용의 친구들이 1주일 동안 말 없이 앉아 있었을 때는 용에게 위로가 됐는데, 그들이 말을 하면서부터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주게 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말하지 않는 것이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도 있지만, 말해야 하는 대화마당을 개최하게 됐다”고 했다.

또 “목회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지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만, 별로 뚜렷한 해결책이 떠오르지 않는다”며 “도움을 준다는 것 자체가 무력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함께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생각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후 오성춘 원로목사(광장교회)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목회자·교사로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오 목사는 “타락한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사탄이고,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와 정욕과 탐욕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한 자기중심적 존재들이어서, 언제 어디서나 세월호 참사와 같은 비극을 만들어내고 저주의 인생을 살게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참사의 특별한 점은 국민 모두와 사회 전체에 그 파장이 미치고 있는 점으로, 이에 대해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외상을 입게 할 뿐 아니라, 과거에 입은 정신적 외상들을 활성화시켜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세상은 끊임없이 사건들을 일으켜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행한 사건 속에 임재하여 치료하며 지탱하여 인도하며 화해하며 돌보는 일을 계속하고 계신다”면서 “하나님께서 세월호 참사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적 위기와 장애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지탱하며 인도하기를 원하신다”고 강조했다.

이후 세월호 참사를 통한 메시지와 받아들이는 방법에 대해 세 가지로 조언했다. 첫째로 이제는 세월호 참사를 ‘상징’화하여, 그것을 머리에 떠올리자마자 내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주는지 생각해야 한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애통하며 불행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상이 다시 한번 표출되면서 고민을 겪는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지탱하고 돌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로는 ‘공감’. 오 목사는 “참사를 기억하자마자, 나 자신과 공감대를 가지면서, 이 참사가 선장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때문, 우리 때문’이라고 여겨야 한다”며 “우리가 이제까지 불의하고 부정을 행하는 등 잘못된 모습, 예를 들어 교회라면서 생명보다 물질을 중시했던 점들을 반성하고 회개해 새롭게 고쳐 나가야 한다”고 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유족과 희생자들의 고통 속에, 희생자들이 죽음으로 부르짖는 ‘그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오 목사는 “‘너희들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죽었다’는 목소리보다, 이제 이 땅에 법을 고치고 정치와 문화와 가치 등 모든 것들을 개혁함으로써 다시는 이 같은 불행이 오지 않도록 만들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목사는 “어떻게 도울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슨 일을 하든 우리의 기본은 ‘생명이 되어야 한다’며 “내

가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묻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참사와 희생자들, 고통받는 한국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먼저 물으라”고 했다. 그는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무엇보다 생명을 얻고 이를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 오신 것”이라며 “모든 논의의 중점은 ‘치료’가 아니라 ‘생명이 돼야 하고,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아파하고 상처 입고 고민하고 울부짖고 있으며, 이들을 어떻게 풍성한 생명으로 옮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오성춘 목사는 ‘지탱 목회(Sustaining Ministry)’ 개념을 소개했다. ‘치유 목회’가 질병이나 결함, 왜곡 등으로 인해 풍성한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원상회복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목회라면, 지탱 목회는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사람들에게 남은 것들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돕는 목회를 말한다. 오 목사는 “아들을 잃은 사람은, 아들만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면서 ‘상실의 관점’에서 자신을 보게 된다”며 “상실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계속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보존하면서 네 가지 단계로 사람들을 도와 하나님의 생명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 첫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을 ‘보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서는 ‘함께 있어주는 목회(Attending Ministry)’가 필요하다. 찾아가서 몸으로 함께 있어주면서 합당한 몸의 접촉을 통해 피부로 함께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다음으로는 애통한 일을 당해 참사가 끊어지는 그 이쯤 속으로 함께 들어가 주는 것이다. 그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누군가 내 옆에 있다’는 마음을 갖게 할 때 그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현상을 보존하게 된다”고 했다.

둘째는 아직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공동체(교회)가 곁에 있음을 발견하는 ‘위로’의 단계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여전히 사랑하시며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위로가 찾아온다. 오 목사는 “먼저 상실당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을 섬기고 돌보며, 예배·말씀·기도·찬양 등 영적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며 “상실에 집중하다 보면 해야 할 일, 작은 일들을 못하게 되는데 그 일을 누군가 옆에서 모르게 도와준다면 어느 순간 이 일을 해야겠다며 정신을 차렸을 때 나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있었음을 느끼고 위로를 얻을 것”이라고 전했다.

셋째로는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있음을 발견하는 ‘결속’의 단계이다. 이는 아직도 자신에게 사랑으로 책임지고 돌보아 할 사람들이 있음을 느끼는 것(감동)을 잃고 애통하다 요양을 통해 정신을 차리는 다(와)와, 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후 다시 사명을 부여받는 베드로) 등 두 가지가 있다. 그는 “책임질 사람들과 남겨진 사명이 있음을 재확인할 때, 애통으로 자기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자기에게 아직 남아 있는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미래의 문을 열 수 있는 힘을 얻는다”고 했다.

마지막 단계는 아직도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원들을 발견하고, 자기를 사랑하며 섬기는 이웃과 자기를 품어주는 공동체, 자기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구속’의 단계이다. 오 목사는 “진리를 아는 것과 따라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의 인생으로, 결속의 단계에서 구속의 단계로 나아가려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고 했다. 오 목사는 “‘목양의 관점에서, 우리는 ‘목자가 무엇이 하는가?’보다 ‘양들이 제대로 먹었는가?’ 양들이 건강한가? 양들이 풍성한 생명을 얻고 있는가? 제대로 돌봄과 양육을 받고 있는가? 양들이 행복한가?’ 등 양 자체의 복지와 건강과 행복에 관심을 갖고, 진정으로 사람들을 건강하고 행복하며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용 기자

앞서가는 젊음스타일이 살아있는 곳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 알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트레이트 \$100 up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 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33년 전통의
HEALTH HQ구연산 명가
Since 1982

가정의 달 선물 잔치!

HQ구연산은 도매가 이하로 고객 직판을 하기 때문에 건강식품점이나 마켓에서는 구입하실 수 없으므로 타사 유사품에 주의하십시오. 구연산을 드실 때 신맛으로 고민하시는 분은 저희 미네랄 건강소금을 함께 타서 드시게 되면 에너지 드링크가 되어 건강에도 좋고 먹기에도 편리합니다.

HQ구연산의 효과에 대한 명성은 3백만병 판매 대박 히트상품을 만들어 냈습니다. 첫 출시보다 두 배나 더 되는 양으로 고객님들을 모시다보니 더 이상의 보너스를 드리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지만 그래도 "HQ구연산은 사랑입니다"라는 슬로건을 만들어 낼 만큼 고객 사랑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와 실험 그리고 임상을 거쳐 100% 천연 물질로 각종 암과 난치병, 그리고 아토피와 더불어 면역 결핍으로 야기되는 각종 질병들을 예방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의약품인 미라팜-22가 출시되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성의를 다해 준비했습니다.

당뇨, 고혈압, 변비에
효과가 너무 좋아
더욱 널리 소문난

HQ구연산

국민 건강 식품입니다. 가장 저렴하면서도 가장 탁월한 효능의 구연산!

프로모션 A
알파3병 + 오리지널7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No Tax

프로모션 B
오리지널 10병 +
미네랄 소금 2봉지(2LB) =
\$380 \$100 No Tax

프로모션 C
알파6병 + 오리지널2병 + 소금1병
미네랄 소금 1봉지(1LB) =
\$400 \$100 No Tax



(직접 방문하시는분께 소금병 1개 무료증정)

한 병은 2-3개월분

Kosher Approved Organic/ 8온스(226그램) / 성분: 구연산 100%

HQ구연산은 매실의 80배, 레몬의 200배 농도의 100% 유기농 천연 알칼리 발효식품

HQ 구연산 효과는 확실합니다! 자신있게 권합니다!

자도자도 피곤, 만성피로는 만성병의 근원 당뇨 / 고혈압 / 만성피로

100%
환불 보장

노벨상을 3회씩이나 수상한 경이로운 식품

- **바르다넨 박사** (핀란드 1945)
구연산이 "구연산 사이클"의 열쇠가 되는 <오기자로 초산>이 되며 인체의 피로를 제거해 준다.
- **크레브스 박사** (영국 1953)
구연산이 인체 내 피로물질인 젖산을 빨리 분해하고 축적을 막아 피로회복과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해주어 피로회복과 노화를 방지한다는 구연산 크레브스 사이클 이론으로 노벨 생리 의학상을 받았다.
- **브르크 박사, 린넨 박사** (미국, 서독 1964 공동수상)
구연산은 체내에서 모든 영양물질을 완전 소화 흡수하여 인체내의 자연치유력을 최대로 하여 준다.

노벨상 홈페이지(www.nobelprize.org)를 방문해 검색란에서 Citric Acid를 검색해 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연산은 약이 아니고 식품이면서 인체에 다음과 같은 도움을 준다.

- ◇ 구연산을 섭취하면 크레브스사이클의 출발물질이 되어 신진대사가 원활하여짐과 동시에 인체 피로물질을 신속히 배출하고 혈액을 맑게 하여 순환을 도와 2시간 내에 피로한 기색이 사라지게 한다.
- ◇ 구연산은 입맛을 당기게 할 뿐 아니라 식품에 붙은 세균을 살균시켜 소화불량, 위장병을 없애주며 장내의 활동이 원활해지고 장벽을 깨끗이 청소해줌으로 변비를 없애준다.
- ◇ 구연산 속의 변환효소는 혈관의 수축작용에 관계하여 혈압을 모두 낮추주는데 획기적이다.
- ◇ 구연산은 체내 세포 내의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근육을 굳게 하는 독극물인 젖산(유산)과 초성포도산(필빈산)을 태워 없애주면서 당을 조절하여 당뇨병을 호전시킨다.
- ◇ 구연산은 간장에 해로운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고 독소를 분해시켜 간장을 보호하며 간 기능의 부담을 없애준다. 또한 지방간이나 고콜레스테롤에서 해방되도록 해 준다.
- ◇ 구연산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술독과 담배로 인한 일산화탄소를 분해시켜 부부생활이 즐거워진다.
- ◇ 구연산은 정혈과 살균작용이 뛰어나므로 나쁜 피를 맑게 정화시켜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 구연산은 피부와 혈액순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알러지와 가려움증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 ◇ 구연산은 발암물질인 과산화지질을 억제하고 세포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 기미의 원인인 멜라닌 색소를 배출시켜 버린다.
- ◇ 구연산은 젖산을 분해시켜 근육을 유연하게 할 뿐 아니라 통증을 없애는 부신호르몬을 분비시켜 요통, 어깨결림, 오십견을 없애준다. 또한 심한 운동으로 인한 인대가 늘어나거나 허리 통증을 없애준다.
- ◇ 구연산은 세포가 노화되어 동맥경화증, 고혈압, 간장병, 류머티즘 등과 같은 성인병의 유발과 노화의 원인인 유산을 분해시켜 피로를 없애주며, 산성화 된 인체를 알칼리성으로 개선하여 준다.
- ◇ 혈액을 알칼리성으로 유지하는, 즉 혈액을 맑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자연히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주므로 신체의 모든 기능을 정상적으로 활동하게 한다.
- ◇ 만성신장병으로 신장의 기능이 저하, 부종, 고혈압, 전해질이상, 빈혈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그 정도가 심해 요독증에 이를 경우 신장의 기능을 최대로 증진시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도와준다.
- ◇ 좌골신경통, 요통 등의 통증을 완화해 주는데, 이는 알칼리로 체질개선이 되기 때문이며, 맑은 혈액으로 혈액순환을 좋게 하여 자연 치유력이 최대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 ◇ 숙취에 효과적이며 간기능을 강화시킨다. 또한 산성혈액을 정화하여 항체체질로 바꾸는 작용을 한다.

구연산복용체험담

구연산 보급 30년에 각종 체험사례를 모았지만 너무 많아 이곳에 다 적지 못합니다. 구연산을 매일 2-3회 평생 드시면 암, 치매 등 예방하고 병원, 약값이 절약됩니다.

- ★ 늘 피곤하던 몸이 가벼워지면서 삶의 활력이 넘쳐 좋았다.
- ★ 간질환을 앓고 있다가 구연산 덕분에 완전히 회복되었다.
- ★ 당뇨가 심했는데 복용 3일 후 푹푹 떨어져 당약을 조절함.
- ★ 혈압 2000이 넘음. 복용 후 120정도. 이제는 혈압약 안먹음.
- ★ 누나의 소개로.. 지금은 보청기를 끼지 않아도 잘 들린다.
- ★ 신장염으로 온몸이 통통 부어 있었는데 구연산이 낮게했다.
- ★ 여드름에 구연산 마사지를 해주니 맥 못 추는 것을 알았다.
- ★ 손, 발바닥 무좀을 구연산에 담갔더니 점점 회복이 되었다.
- ★ 방광에 대한 자각증상이 있었는데 장복 후 사라져 버렸다.
- ★ 대장포진으로 가려워 죽을 지경이었는데 먹고 바로니 다음.
- ★ 비염,코를 및 피부 알러지가 완전히 가셔서 계속 복용중임.
- ★ 7년간 피부암이었는데 3주 동안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됨.
- ★ 아토피를 앓았는데 구연산 물을 먹고 바르면서 나아졌다.
- ★ 온몸에 진물을 동반한 두드러기와 가려움증이 사라졌다.
- ★ 나는 당뇨와 17가지 합병증으로 자살을 3번 시도했다. 그러나 구연산 복용 후 2주 만에 완전 정상. 후에 목사 됨.
- ★ 린스처럼 사용했더니 탈모가 중지되고 가려움증이 없어졌다.
- ★ 요리할 때 식초 대신에 사용하면 물기가 없어서 좋았다.
- ★ 당뇨로 잃은 왼쪽 눈, 두 달 만에 시력을 완전히 되찾았다.
- ★ 외출 시에 벌레물린 곳, 몸의 상처를 구연산으로 해결했다.
- ★ 가정상비약처럼 두고 항상 구연산부터 찾는 습관이 생겼다.
- ★ 전 농림부장관 30년 다른 약은 일체 끊고 구연산만 복용. 피검사 후 혈액이 20대 같음. 얼굴에 검버섯, 기미 사라짐. 79세인데 장기 복용하니 두뇌가 청년시절처럼 되돌아 옴
- ★ 파킨슨병으로 고생하다가 구연산 두 달 먹고 테니스도 친다.
- ★ 통갈비, 잔갈비를 구연산에 재니 핏물이 빠지고 맛도 좋음.
- ★ 나무를 무칠 때 식초 대신 사용하면 훨씬 맛이 있고 좋음.
- ★ 밥을 할 때나 국을 끓일 때 구연산을 첨가하면 맛이 좋음.
- ★ 공부하는 아이에게 줬더니 졸지도 않고 집중이 훨씬 잘됨.
- ★ 운전할 때 구연산 물을 마시면 졸리지도 않고 피곤치 않음.
- ★ 눈이 침침할 때 구연산을 찍어 바르니 눈이 점점 밝아졌음.
- ★ 허가 심하게 갈라져 약을 먹어도 안되는데 구연산이 해결함
- ★ 위장병으로 속이 무척 쓰렸는데 구연산을 복용하고 나아짐.
- ★ 50년된 만성변비가 구연산 3일 복용 후 정상 변을 보게 됨.
- ★ 허리통증, 어깨결림이 구연산 10일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 ★ 오십견으로 고통이 심했는데 1주일 후 통증이 거의 없어짐.
- ★ 구연산 복용 45일 후 42인치 허리가 36인치로 줄어들었음.
- ★ 만성 아토피와 간암이 구연산 1년 복용 후 완전히 사라졌음.
- ★ 구연산 복용 후에 피부가 너무 좋아지고 얼굴색이 젊어졌음.
- ★ 양손가락이 완전히 오그라들었는데 6개월 후 완전히 펴졌음.
- ★ 다리가 저리고 걸을 수가 없었는데 보름 후 증상이 사라짐.
- ★ 유방암이 구연산만 장기 복용 후 완전히 사라짐. 목사 사모.
- ★ 10년간 사타구니의 피부암으로 고생하다가 점차 회복되어감.
- ★ 쌀이나 아채나 과일을 씻을 때 구연산으로 헹구면 농약 끝.
- ★ 만성피로와 간장질환을 구연산을 먹고 지방간도 낫고 회복.
- ★ 30년된 부정맥이 구연산 복용 후 3일만에 정상맥박으로 됨.
- ★ 눈수술 후 안압이 잡히질 않았는데 45일만에 정상이 되었다.

이부영 박사는 왜?

의사들의 검진결과에 대한 처방전을 구연산으로 내려도 관찰을 것이라고 하였을까?

이렇게 만병 통치에 가까운 구연산을 왜 의사나 약사들이 권하지 않고 있었을까? 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서 구연산을 가르치지 않고 있으니 알 리가 없고 안다고 해도 값싼 구연산으로 병을 고쳐라고 처방해 준다면 돈벌이도 안되어 병원 기관을 다 뜯어내려야 할 판국이니 누가 그 같은 짓을 한단 말인가. 때로는 내 자신도 이런 신비의 효능의 구연산을 혼자만 알고 건강을 지망하면 될 터인데 무엇 때문에 의학계의 눈총을 받아야 욕을 먹는 걸까 생각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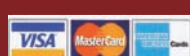
건강은 행복의 원천이니 누구나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 그런 면에서 구연산은 실질적인 건강의 파수꾼이라 할 만하다. 나는 구연산을 복용한 지 이제 막 20년째 들어서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에서는 구연산의 최장기 복용 기록 보유자가 될 것도 같고 구연산의 신비성에 대하여 나만큼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드물 것 같다. 그러나 애독자들에게만은 건강을 선사해 드리지 않을 수 없어 이 글을 써 보낸다.

이부영박사 현, 서울대학교 의대 명예교수, 대한의학회에서 주는 분취의학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많은 상을 받음
1966년에 스위스 취리히 용연연구소 수료
융합파 분석가 자격 취득
*** 위 이부영박사 내용은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공개된 정보입니다.



HQ 헬스, Inc. / HQ 바이오텍

833 S. Western Ave, #1 Los Angeles, CA 90005



L. A. 본 점 (213)365-2100
세리토스점 (562)760-2359

월-금: 10am-7pm, 토:10am-5pm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 희망을 보게 했다”

장신대, ‘희망의 신학’ 50주년 맞아 몰트만 박사 초청 특강



‘희망의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으로 표현했을 때, 가톨릭 신학자인 칼 라너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실 수 없다’고 변호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처럼 그렇게 형편 없으시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는가?’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내가 정말로 형편없게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셨다고 느꼈을 때, 나를 도와 준 분은 바로 나와 함께 고난당하신 하나님이셨다.’”

위르겐 몰트만 박사(독일 튀빙겐 대학교 전 교수)가 12일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김명용 박사)에서 열린 특별강연회에서 강사로 초청돼 한 말이다.

그는 자신이 지난 1964년 쓴 ‘희망의 신학’ 50주년을 맞아, 이날 그 주요 사상들과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그는 ‘희망의 신학’이 단순히 ‘낙관주의’ 혹은 ‘긍정적 사고’로만 이해되는 것에 대해, 진정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 속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몰트만 박사는 “(십자가의 희망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희망 없는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리고 죽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희망”이라며 “희망의 하나님”은 또한 그들과 함께 그들 안에서 고난당하시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아우슈비츠의 가스실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우리는 아무런 이해가 없다. 나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죽어가시면서 하나님께 외치셨던 탄원,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는 일, 대답 없는 질문들, 그리고 구원 없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열쇠가 됐다”며 “내가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포로수용소에서 ‘하나님의 떠남’을 겪었을 때, 예수께서 나 자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신 것은 바로 이 탄원을 통해서였다. 그의 ‘함께 고난당하심’이 나오 하여금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게 했다”고 고백

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는 “십자가 신학의 전통에 따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또는 하나님과의 화해로서, 그리고 죄인에 대한 칭의로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묻는다”며 “그러나 이 질문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이 과연 하나님께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또한 생각해볼 수 있다. ‘자신의 독생자의 지상적 운명이 하나님을 냉혹하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수난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들이 바로 그것”이라고 말했다.

몰트만 박사는 “이렇게 물으면 기독교 신론의 전통에서부터 ‘하나님의 무감각’에 관한 공리가 즉각 대응해 온다. 바로 하나님은 그 본성상 어떤 고난도 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감각적이며, 기쁨도 고난도, 사랑도 분노도 알지 못하신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수난은 또한 그의 하나님의 수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몰트만 박사는 “따라서 디트리히 분회퍼는 죽음의 감옥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오직 고난당하는 하나님만 (우리를) 도울 수 있다.’ 고난에 불능한 하나님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든다”며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우리를 자비롭게 만든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대 기독교의 다음과 같은 외침은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십자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여’”라고 강조했다.

한편 몰트만 박사의 제자이기도 한 장신대 총장 김명용 박사는 이날 ‘세상을 바꾼 신학-‘희망의 신학’ 50년, 몰트만 신학의 공헌에 대한 연구’를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 박사는 “몰트만의 신학은 한 마디로 세계를 바꾼 신학이다. 그는 세

계 신학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다”고 평가했다.

김 박사는 몰트만 박사의 저서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을 언급했다. 그는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연 귀중한 저술”이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의 문제에 가장 큰 걸림돌은 ‘참 하나님’이 어떻게 ‘참 사람’일 수 있느냐의 문제다. 참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참 인간은 전능하지 않고, 참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데, 참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몰트만의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 이해에 혁명을 요구하는 책이다. (이 책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정확하게 계시돼 있다. 하나님의 아픔과 목마름, 하나님의 고통과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됐다는 것”이라며 “칼케돈 신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라고 말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나사렛 예수 그분이 성자이시고, 그분이 하나님 신성의 계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자라고 칭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간성과 다른 신성이 들어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성자라는 뜻”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우리는 나사렛 예수 안에서 성자의 참 신성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 성자의 신성은 아파할 수 없는 신성이 아니라 아파하시는 신성이었고, 목마름과 배고픔을 느끼는 신성이자 고난 받고 죽을 수 있는 신성”이라며 “우리가 전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이해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는 다른 낯선 어떤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자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끝으로 “몰트만의 신학은 신학 역사의 크고 큰 분수령이다. 몰트만이 등장하기 이전의 신학과 몰트만이 등장한 이후의 신학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 몰트만의 신학은 그리스도교 신론의 역사에 큰 혁명을 일으켰고, 헬라적으로 각인된 잘못된 신관을 고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에 입각한 참된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드러냈다”며 “몰트만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예정론과 신정론, 삼위일체론 및 그리스도의 두 본성론의 신학적 난제들을 그의 천재적 시각으로 해결했고, 바른 방향으로 세계 신학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진영 기자

“현 시대 가장 필요한 것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한국SIM국제선교회, 보군조코 국제총재 초청 세미나



한국SIM국제선교회가 남서울교회에서 선교세미나를 열었다.

한국SIM국제선교회(대표 김경술 선교사)가 12일 남서울교회에서 SIM 국제총재인 조슈아 보군조코 박사, 아시아태평양 담당인 다이안 마샬 부총재, 연구조사팀의 필 마샬 박사를 초청해 선교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조슈아 보군조코 국제총재의 통역을 맡은 한국대표 김경술 선교사는 “한국교회 선교도 이제는 세계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SIM선교회는 오랜 역사를 가진 국제적인 선교단체로서, 한국의 선교단체들과 선교사 정보와 선교시스템을 공유하며 경쟁 관계가 아닌 협력 관계로 긍정적인 사역의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총재 조슈아 보군조코 박사는 ‘변화하는 세상과 그 필요’라는 제목의 첫 번째 강연에서 먼저 현 시대의 문제점에 대해 “모든 종교는 다 똑같다는 종교다원적인 사고방식이 선교에 있어서 큰 도전이 되고 있다. 복음을 전하여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라고 여긴다. 또 많은 국가가 기독교에 관해 적대적인 법을 만들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가 아닌, 단지 여러 서적 중 하나로 취급해야 한다는 재판이 있었다. 성경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것을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십자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죄인은 지옥에 간다’는 것을 선포하기 굉장히 불편해 한다. 그러나 만약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도 없는 것이다. 변화하는 세상에서 가장 큰 실상은, ‘사랑의 하나님은 듣고 싶어하지 않, 심판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물질적인 것들과 안락을 바라는 변영신학도 이러한 현상 중 하나이다. 이는 자신이 원하는 것에 대한 신앙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에 대한 신앙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굉장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나이저리아에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테러로 인해) 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교회에 가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분명히 선교에는 위기가 따른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어 사역의 문을 열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그 예로 올해 2월 튀니지 정부는 ‘종교의 자유’에 관한 새로운 헌법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다”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폭력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동참해야 한다. 이는 굉장한 특권”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슈아 보군조코 박사는 ‘세상을 향한 세계선교’라는 제목의 두 번째 강연에서 “오랜 전에 캐나다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현재는 오히려 한국에서 캐나다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다. 선교사원은 한 곳에서만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많은 것을 이루셨고, 한국교회에 새로운 기회를 열고 계신다. 우리는 이에 동참해야 한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다”고 했다.

다이안 마샬 SIM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총재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파트너십,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우리는 다른 팀원들과 어떻게 협동해서 일할 수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파트너십이 전 세계 사역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빨리 가길 바란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더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라’는 격언이 있다. 파트너십은 빨리 가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지만, 더 멀리 가게 해준다. 세계선교에서 우리는 더 멀리 갈 필요가 있다. 우리는 효율과 성공을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사역이 신실하고 효과적이고 생산적이기를 기대한다”며 사역에서의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신태진 기자

9가 로데오 갤러리아몰

OPERA HOUSE Bakery

“교회 행사용 CAKE 및 빵 주문시 할인해 드립니다”

operahousebakery@gmail.com
T. (213)384-1999
833 S. Western Ave. Suite # 38
Los Angeles, CA 90005

웨딩케익 및 단체주문 환영

위대한 한국인.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WHY ME MY GOD"

"나는... 나의 일생의 연구로부터 세계가 이로움을 얻기를 바란다. 이 열망을 성취하기 위하여 거의 항상 고통과 고뇌들이 나를 따라왔다.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에 의지하고, 노력할 때, 문제를 해결 할 길을 항상 있다고 믿고 있고, 만약 누군가 내 인생에 걸친 나의 경험으로부터 이로움을 얻는다면 나는 더없이 기쁘고 또한 영광스러울 것이다."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송문기 박사는 체내 아연 대사와 관련한 각종 연구성과를 세계적으로 높이 인정받아, 세계 100인 인명사전 중 가장 권위가 있는 MARQUIS WHO'S WHO에 등재되어 있는 인물로, 40년간 아연 연구에 몰두한 아연 전문 재미과학자이다. [MARQUIS WHO'S WHO] 마르퀴즈후즈후사는 1899년에 문을 열어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어 역사적으로 가장 오래된 세계인명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인더월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 5만여 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그는 일찍 미국으로 건너가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논문과 저술을 통해 생화학 분야와 의과학분야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인의 위상을 높였다. 그가 쓴 논문과 저서들은 미국 의학계에서 많은 지침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송 박사

는 40년간 인체의 당뇨병과 비만 같은 난치병을 공략하기 위해 많은 성과와 업적을 이뤄냈다. 인슐린 소화효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물질을 찾아내 신 합성물질(PRO-Z, Cydo-z)라고 명명했다. Cydo-z는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FDA)로부터 전 임상 및 1차 임상이 2006년도에 통과되었고, 현재는 2차 임상이 미국 FDA에서 진행 중이며, 2014년경 임상 결과를 발표 예정이고, 이후 상용화 단계인 신약개발 과정을 밟게 된다. PRO-Z는 미국 FDA-IND(투여 실험이 인가된 신약)의 허가를 받아 임상 실험을 거쳐 뉴트리슈티컬(준 의약품)로 분류된 후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당뇨병 환자에게 판매되고 있다. 임상보고에 의하면 PRO-Z를 복용한 당뇨병 환자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인 경우 현재 맞고 있는 인슐린 주사를 중단하거나 횟수를 줄일 수 있고 혈당 강화제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가능성과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송 박사는 "치료제 승인을 얻어 신약으로 출시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

기 때문에 일단 뉴트리슈티컬로 당뇨병 환자에게 공급하고 있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유명한 벤처 기업이 새로운 브랜드 "PRO-Z"로 적극 공급할 계획이어서 연구 성과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송 박사는 대한민국 대전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이민 후 하와이대학교에서 분자유전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인디애나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의학유전학으로 박사후기 과정을 거쳐 미국 캘리포니아 LA소재 UCLA의과대학에서 생화학분야 연구교수로 역임하며, 미국정부산하 기관인 VA Greater Los Angeles Healthcare System에서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한국 정부의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사업에 초청된 바 있다. 현재도 활발한 연구활동으로 세계적인 과학지인 Nature 등 세계유수 연구 관련 기관의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있다. 아연 관련 주요 연구성과로 당뇨,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세계 주요국에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현대 신약으로써의 허가를

위한 임상 및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아연 관련 주요 연구성과로 당뇨, 비만 그리고 알츠하이머를 위한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해 세계 주요국에 다수의 특허를 취득하고 현대 신약으로써의 허가를 취득한 것이다



송문기 박사

- 송문기 박사 약력
- UCLA 의과대학 연구 교수
- 미제항 군인 병원, 수석 연구원
- 세계 3대 인명사전 Marguis Who's who에 등재
- 40년간 당뇨병연구에 매진한 대한민국 대표 과학자
- 최근 연구 경력
- 1993 ~ 현재 연구교수, 소아과전문, 소아과, UCLA 의과대
- 1994 ~ 1997 연구원, 미 국가 보훈처산하 병원(LA소재)
- 1995 ~ 1996 해외고급 과학두뇌 초빙활용 사업, 과학기술대학교(한국)
- 1997 ~ 현재 RESEARCH SCIENTIST(WOC), VAGLA HEALTHCARE SYSTEM.

당뇨병 완치 지금 현실화되고 있다!!

당뇨병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완치는 불가능하다.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당뇨병의 진행을 정지시키고 동시에 당뇨병의 빈발하는 합병증의 발생 및 진전을 예방하는 데 있다. 이것이 일반이론이다. 그러나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 온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재미 과학자 송문기 박사와 그 연구진들은 Zinc(아연)가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되는 사실에 주목했다. 송문기 박사팀은 Histidine과 Proline을 합성한 Cyclohispro(이하 CHP로 표기)가 체내 아연흡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

킨다는 점에 착안해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다. 특히 미국정부는 비만성 당뇨병환자로 인해 국가 의료비용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전역에서 180여개의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정부연방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당뇨 치료를 위한 새로운 방법의 잠재적 가치를 크게 인정해 송 박사팀의 연구를 완성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특별 지원 자금(Special Reward Fund)을 마련해 FDA 임상실험을 현재 진행하고 있다.

100% 천연성분의 당뇨원인 개선제 "프로지(PRO-Z)"

프로지(PRO-Z)란? 제2형 당뇨병의 근본원인, 즉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서 당의 대사를 거부하는 원인을 제거하여 정상적인 당대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해줌으로 인하여 당은 자연스럽게 소화되기 시작하며 대략 복용 3-6개월 후면 당뇨병 중 경증까지 못 하던 새로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당 수치가 내리기 시작하고 피로감 역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인체에 부작용이 전혀 없음은 물론 간 기능, 신장기능을 좋게 하여 부수적 효과도 있고 당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유시키는 세계 최초의 획기적인 제 품이다.

프로지(PRO-Z) 주성분은 소의 전립선추출물(bovine prostate extract)과 아연(zinc)으로, 소의 전립선추출물이 체내 아연 흡수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에 착안하여 당뇨증상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된 solution이다. 아연(Zinc)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인 인슐린 저항성(insulin resistance)에 관여하는 IDE(insulin degradation enzyme)의 주요성분으로, 일반적으로 아연결핍 증상을 보이는 대다수 당뇨병환자에게 소의 전립선 추출물과 아연을 함께 제공하여 (제조방법 미국 및 유럽 특허취득) 아연의 체내흡수 증가

를 도와 인슐린 저항성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궁극적으로 당뇨 관련 증상의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한 효능검증은 1997년 US DVA Medical Research Service 지원을 받아 직접 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pilot clinical trial(12주)을 실시한 결과, HbA1c 관련하여 매우 긍정적인 개선 결과를 확인하였으며(22% 정도 증상 개선 효과 확인, HbA1c12.2% -> 9.50%) 공복혈당의 경우도 개선효과를 보인 약 70%의 환자에서 29% 정도의 (221mg/dL -> 156mg/dL) 개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왜 아연(Zinc)인가?

아연은 거의 300여개의 금속결합 효소와 단백질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이러한 효소들은 글루코스와 신진대사 뿐만 아니라 인슐린 및 인슐린 수용체의 합성과 연관돼 있다. 또한 아연은 체장 베타세포에서의 인슐린 저장에 필수적이며 인슐린 분비를 심하게 자극하면 체장 베타세포의 아연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아연결핍 유발요인으로는 수면부족, 불규칙한 식생활, 담배와 과음, 스트레스 등이 있다. 특히 당뇨병환자들은 대부분 아연결핍증상을 보인다. 아연의 특성상 공급을 해도 짧은 순간 방출돼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그러

나 송 박사팀이 개발한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은 아연이 일정시간 인체에 머물며 제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 온 이 분야 최고 권위자인 미국의 송문기 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되는 사실에 주목해 Zinc Metabolism을 활용한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했다. 아연과 당뇨병과 관련된 기능은 적어도 70년동안 의료계는 당뇨병의 결과로서 아연대사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시 말해 아연대사와 당뇨병 사이의 중요한 관련이 과학문헌에서 명확히 확립돼 있다. 기존 아연 섭취시 최대 단점이 인체 내에 짧은 순간 머물고 방출돼 아연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 CHP가 체

핵심기술 기본 원리

내 아연흡수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킨다는 것을 발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 합성물질(CHP Plus Zinc)을 개발하게 됐다. CHP로 킬레이트화 된 결정형 아연으로 이뤄진 조성물을 개발하게 됐다. 아미노산과 킬레이트된 아연은 자연상태에서 존재하는 각종 형태의 아연보다 3~4배의 높은 흡수 이용률을 보여준다. 특히 신 합성물질은 인슐린 소화효소(IDE)를 자극시키는 것으로 증명됐다. 즉 인슐린 소화효소 활동을 강화시키고 합성을 증가시킨다. 그 결과 혈액속에 고인슐린혈증이 개선된다. 고인슐린혈증은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등을 복합적으로 발생시킨다. 아울러 아연은

인슐린소화효소의 한 부분이며 인슐린 소화효소의 활동에 필요한 인자다. 신 합성물질의 최적 복용량이 기존의 혈당조절제와 비교하면 인슐린의 반응도는 상당히 향상된다. 이는 신 합성물질이 다른 부작용 걱정없이 당뇨병을 단기간에 조절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PRO-Z USA
미주 프로지 판매처
문의 T)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GOLDEN STATE UNIVERSITY

School of Oriental Medicine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전인치유 한의사가 되는길."

"가주면허 100% 합격률, 취업 훈련, 자체 유학비자 발급, 일대일 임상지도"

- 입학자격 : 대학 60학점 이수하실 분, 대학 60 학점 이수 하신분, 대학 졸업자, 의료계 종사자(간호사, 물리 치료사, 약사, 의사, 카이로 프랙터)
- 입 학 : 수시 입학 상담
- 입학문의: 562) 965-5112 / 김성일 박사 gsu_inc77@yahoo.com

부설

단기 의료 선교 훈련반

단기 의료 선교 도우미 사역 준비

양 · 한방, 간호사 보조 및 견학

각교회 의료선교 사역팀 훈련 의뢰받습니다.

* 대학병원안내: 진료시간 월-금 9:00-7:00 pm 토: 10:00-3:00 pm
경험많고 유능한 교수의료진 서비스

골든 스테이트 한의과 대학 9047 E. Florence Ave. #L. Downey, CA 90240

<서승원 박사 특별 기고>

하나님의 성호와 그 밖의 호칭들(1)

I. 들어가는 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어느 날 예기치 않게 찾아온 여호와증인들과 함께 성경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이들이 느닷없이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라는 질문을 하여 적지 않게 당황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구약을 주의 깊게 읽는 분이라면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는 분은 꼭 드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은 아마 성경 어느 곳에도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심지어 구약학자들 간에도 이에 대한 의견의 일치가 없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지금까지 그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힌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적어도 필자가 아는 한 그러하다.

그런데 요즈음 학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이 “야웨”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러한 추세는 학자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비단 학자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들 가운데도 “야웨”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국의 신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여호와”나 “야웨” 대신에 “야훼”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

로 보인다. 2008년 2월 14일자 크리스천헤럴드 제10면에 “존 맥케나 교수에 따른 모세오경의 개요와 그 신학적 목적(2)”라는 글이 실렸는데, 이 글을 쓰신 분이 Boston University의 박 아무게 목사라고 되어 있었다. 이분은 그의 글 속에서 “여호와” 대신에 “야훼”란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2009년 1월 8일 기독일보에 실린 숭실대학교 기독교학원장 김영한 교수의 “쿰란공동체와 나사렛 예수”라는 글에도 “야훼”라는 명칭이 사용됐고, 2014년 2월호 The Korean Christian Journal에 실린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나라(1)”라는 글에서 김세윤 교수도 역시 “야훼”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캐나다의 리자이나 대학교의 종교학교과장이었던 오강남 교수의 책 “예수는 없다”라는 책에도 역시 “야훼”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여호와” “야웨” 그리고 “야훼” 중에서 어느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이름인가?

히브리어 문자는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히브리어 원문 성경도 원래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었는데, 약 800년경에 마소라 학자들(Masoretes: Masoretic scholars)이라 불리는 일군의 유대인 학자들에 의해서 자음 밑에 모음부호가 붙여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해당하는 단어를 영문으로는 YHWH(יהוה)라고 표기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표기하는 단어를 테트라그라마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네 글자라는 뜻이다. 뒤에 자세히 살펴보게 되겠지만



서승원 박사
바이블아카데미 원장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네 글자로 된 단어에 여러 종류의 모음부호가 붙어 있다. 그 중의 하나의 발음이 “여호와”이다. 그러나 “야웨”와 “야훼”라는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문으로 YHWH로 표기한다.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τετραγράμμιττον)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네 글자”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써 5,321회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이라고 학자들 간에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학자들은 흔히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웨(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를 들고 있으나 이외에도 “야웨”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근거는 많이 있다. 출15:3에는 “야웨는 용사이시니 야웨는 그의 이름이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출20:7과 신5:11에 나온

필자는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이 무엇이며, 그 밖의 하나님에 대한 호칭들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II. 구약에서

1. 하나님의 이름과 그 뜻

1) 하나님의 이름은 야웨(יהוה)

하나님의 이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יהוה)의 올바른 발음은 요즈음 대부분의 학자들이 선호하는 “야웨”이다. 왜 그런가 하는 것은 뒤에 밝히기로 하고 이 명칭이 사용된 경우들을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문으로 YHWH로 표기한다. 이것을 테트라그라마톤(τετραγράμμιττον)이라고 부르는데, 그 뜻은 “네 글자”이다. 이 말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쓰인 하나님에 대한 호칭으로써 5,321회 나타난다.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의 본래의 이름이라고 학자들 간에 널리 인정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서 학자들은 흔히 출 6: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야웨(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를 들고 있으나 이외에도 “야웨”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근거는 많이 있다. 출15:3에는 “야웨는 용사이시니 야웨는 그의 이름이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웨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이 출20:7과 신5:11에 나온

다. 뿐만 아니라 “나는 야웨 너희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이 모세5경에 여러 번 등장한다. 그렇게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모세5경 이후에도 나타난다. 같은 뜻이지만 “너희들” 대신에 “너희”가 쓰인 “나는 야웨 너희 하나님이다”라는 말도 나타난다. 드물지만 “나는 그들의 하나님 야웨이다”도 나타난다.

이외에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단순히 “나는 야웨이다”라는 말씀은 더욱 많이 나온다. 그리고 “나는”이란 말이 없이 “너의 하나님 야웨”, “너희들의 하나님 야웨” 그리고 “우리들의 하나님 야웨”란 말이 자주 나온다. 그런가 하면 렘23:36에는 “우리의 하나님 야웨, 살아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 나오고, 23:6과 33:16에는 “우리의 의이신 야웨”란 말이 나온다. 그 외에 “그의 하나님 야웨”, “그들의 하나님 야웨” 그리고 드물지만 “그들의 아버지들의 하나님 야웨” 그리고 “나는 주 야웨이다”라는 말도 나온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웨”란 말과 함께 “너희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웨”,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웨”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야웨”란 말도 나온다. 그런가 하면 조상들이란 말이 생략되고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야웨” 또는 “하나님”이란 말이 생략되고 대신 “주”란 말이 들어간 “주 만군의 야웨”란 명칭이 사용되기도 하고, “만군”이란 말이 생략되고 “야웨 주” 또는 “주 야웨”라는 명칭이 사용되기도 한다. (계속)

기본이 안 된 사람, 기초가 흔들리는 사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라 할 수 있다. 아무리 잘 설계되었고 멋지게 지은 빌딩이라 해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했기에 다리가 무너지고 소평물이 가라앉고 집이 땅 밑으로 꺼지는 것이다.

사람도 그렇다. 사람은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이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 물론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게 기본이 안 되었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정말 기본적인 매너, 예의, 태도, 자제, 언어, 행동 등이 안 된 사람이 많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고 처음엔 손색없이 보이는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 “아, 원래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었구나”라고 혀를 찰 수 밖에 없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초면에 반말하는 사람을 만나 본 적이 있는가?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면서 반말을 해 오면 정말 불쾌하다. 그렇다고 그런 사람에게 그대로 반말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현대, 친절하게 대해 주고, 좀더 정중히 대해 줘도 계속 반말을 하는 사람은 다시 상종하고 싶지 않다. 요즘 어느 대형교회 목사가 설교 중 노인에게 대해 비꼬며 반말을 했다는 동영상도 유튜브에 뒀다. 참 딱한 소식이다. 그 목사의 기초는 무엇일까? 그 분은 기본을 갖춘 분인가? 이런 사건 때문에 많은 이들이 목회자가 “기본이 안됐다”라고 “까는” 것 아닐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정중히 대해 주고 예의를 갖추자. 그게 상책이다.

오늘 뉴스를 보니 자동차 정비소에서 불필요한 수리를 속여 하게 하고, 기계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바가지 값을 씌운다고 한다. 또, 중고 부품을 새 것이라 속여 설치하기도 한다고 한다. 특히, 이런 일이 남자보다 여자에게 더 자주 일어난다고 하는데, 남을 속이며



제이슨 송 교장
새연약사립학교

돈을 버는 사람은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임에 분명하다. 그런 사람들의 “거짓”과 “속임”에 대처하려면 소비자가 기계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견적도 여러 개를 받아 비교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이 바로 남의 거짓으로 인해 지불하는 대가이다. 그러니, 정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자. 거짓으로 얻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다.

힘을 남용하여 약자를 괴롭히는 비겁한 사람도 많다.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전을 해 온 어떤 이가 자신의 버스를 타던 어린이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참담한 뉴스도 있고, 학교에서 힘으로 약한 학생을 짓누르는 못난 불리(bully)들도 많다. 직장에서도 직책과 권위로 아래 사람을 못살게 하는 고약한 상사가 있다. 돈이 좀 있다고 남을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다 자기의 힘을 믿고 남을 업신여기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기본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 놓으셨다. 그리고, “큰 사람이 되려면 남을 먼저 섬겨라”라고 가르치셨다. 우리 시대에 좀더 깊이 생각하고 실천해야 할 귀한 가르침이 아닌가?

우리 사회가 약자를 비하하고 섬기지 못하고 있음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다. 젊은이만 선호하는 기업들, 새 것이 더 좋다고만 여기는 소비자들, 전통과 역사를 그저 고리타분하게만 여기

는 사람들, 디지털 세대는 비디지털 세대를 마치 불필요한 부품같이 여긴다. 그런데, 뒷사람과 노인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과 사회는 정말 기초와 기본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 아닌가? 고령화 되어 가는 우리 사회, 베이비부머나 노인을 거주장스럽고 불편한 존재로만 취급한다면, 부모를 공경하고 노인에게 존경을 표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어기는 것이 아닌가?

사람의 기초란 무엇일까? 겸손히 남을 더 존중하는 것, 그것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아닐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는 것이 아닌가? 남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자. 기본이 제대로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더 나아가 타인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 가자. 그런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사회의 기초가 튼튼해질 것이다.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북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작은 예수의 영성

이영훈 | 넥서스CROSS | 248쪽

그리스도인이 '작은 예수'로 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게 이끄는 제자훈련 교재. 각 권 모두 12과로, 1권에서는 십자가, 말씀, 성령 충만, 기도의 영성을, 2권에서는 절대 긍정의 믿음, 섬김과 나눔, 개인적 성화, 선교의 영성을 각각 다루고 있다. 인도자용도 함께 발간됐다.



인간의 일생

이재철 | 흥성사 | 486쪽

창립 40주년을 맞은 흥성사의 이재철 목사 특별판 시리즈 네번째 권. 판형과 표지, 내지 디자인을 새롭게 하면서도, 원저작물 내용은 그대로 담았다. 저자의 마지막 '청년 서신'으로, 의세 권과 달리 가정과 사회 속에서 영성을 다루고 있다. 인생에 대해 성경에 근거한 실제적인 답을 준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오스왈드 샌더스 | 토기장이 | 264쪽

선교사이자 설교자로 살면서 40여 권의 저서를 남긴 저자가 '인도하심'을 주제로 남긴 마지막 저서. 저자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전적으로 보장하며 당신의 주권과 계획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다고 강조한다.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분별력에 도움을 준다.



아낌없이 신실하게

김사무엘 | 두란노 | 222쪽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사업을 위해 미국으로 이민 갔다 5년 만에 주님을 영접하고 신대원으로 진학, 일본과 중국, 그리고 이라크 땅에서 열정적으로 사역하던 모습을 담았다. 그는 혈액암 판정을 받고 10년 전인 2004년 2월 21일 소천했고, 아내인 김영숙 사모가 내용을 정리했다.



REVIEW

기도에 관한 책이 아직도 필요한가? “그렇다”

존 파이퍼와 존 맥아더, 조엘 비키 등이 말하는 <기도는 예배다>

“기도에 관한 책이 아직도 필요한가? 이 질문에 대한 나의 대답은 ‘그렇다’이다. 기도에 대한 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기도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다. 이 책은 기도의 방법론을 다루지 않는다.” <기도는 예배다(Let us pray)>는 존 파이퍼와 존 맥아더 목사, R. C. 스프롤과 조엘 비키 목사 등 대표적인 개혁주의자들이 ‘기도’에 대해 설명하는 책이다. 편저자인 존 킨슬러는 “여러 저자가 이 책을 함께 편찬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나아가 그분이 초점이요 중심이 되는 기도를 드러야 한다는 점을 여러 시각에서 일깨우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대부분의 기고자들이 ‘주기도’를 단

면 기도의 모범으로 꼽고 있다. R. C. 스프롤 목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그분이 기도를 통해 허락하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라며 “신앙생활의 다른 모든 요소와 마찬가지로 기도도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순서가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왜 기도해야 하나?’ 하는 질문은, 기도가 단순히 간구나 청원의 수단일 뿐이라는 일차원적 행위에 불과하다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그러나 기도는 다양한 차원을 지닌 활동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한

다면 오히려 그분을 숭양해야 할 이유는 더욱 분명해진다. ‘하나님께 자신의 가장 깊은 생각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줄 수 없는 특권이라는 것. 예수님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이해한 분은 없지만, 예수님만큼 열정을 다해 기도드린 분도 없다.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은 결코 변할 수 없지만, 그분의 일(thing)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차적 수단과 활동을 통해 주권을 행사하시는데, 신자들의 기도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시는 수단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스프롤 목사는 ‘기도가 일과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냐’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렇다”



기도는 예배다
존 킨슬러 편저
생명의말씀사 | 272쪽

고 대답하겠다고 강조한다. 존 파이퍼 목사는 ‘주기도’에 대한 짧은 글 ‘기도는 고백이다’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주기도의 후반부 세 가지 간구가 필요하지만, 늘 하나님의 범우주적

인 뜻과 그분의 나라, 무엇보다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의 장엄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전했다. 조엘 비키 목사는 ‘기도는 탄원이다’에서 주기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부분을 일종의 탄원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비키 목사는 “주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해주시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뜻이 담겨 있다”며 “우리가 탄원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드리셨던 기도와 그분이 지금 하늘에서 드리고 있는 중보기도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의 중보기도가 우리의 기도와 하나로 연합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권면한다. 이대웅 기자

2014 가을 한국 성지순례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에서는 한국 성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한국 성지순례를 인도 해 오시던 김영혁장로(신앙의 뿌리 찾기 전문위원)와 함께 떠나는 한국 성지(순교지)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한인 성도님들에게는 더 없이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영적 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고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 대표 폴 최목사 드림.

※ 2014년 가을 한국 성지순례 일정 ※

- 일 시: 1차> 2014년 9월 1일~9월 6일(5박6일) 선착순 35명
2차> 2014년 10월 6일~10월 11일(5박6일) 선착순 35명
- 내 용: 한국 선교지(순교지) 순례, 역사적 기념장소 순례
- 가 격: \$699+항공료(35명기준, 6월말 마감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폴 최 목사 714-351-0124 ▪ E-mail: choigh1115@Gmail.com

※ 일정내용 ※

판문점 - 제 3 땅굴 - 한국 순교자 기념관 - 소래 교회 - 제암 교회 - 유관순 생가 (매봉교회) - 해미 생매장 순교지 - 금산 교회 - 정읍 두암 교회 - 한국 선교역사 박물관 - 여수 애양원 - 응촌 교회 -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 양화진 (외국인 공원 묘지) - 영광 염산교회 - 영광 야월 교회등을 돌고 해산하여 추석을 지내고 돌아오는 일정.

한국성지순례 설명회

일 시: 2014년 5월 3일 오전 10시
장 소: 은혜와진리교회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 특 전 한 교회가 계획하시면, 그 교회에 맞게 준비 해 드립니다. 시니어 분들은 시니어 항공가격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항공료는 28년 역사의 파이오니아 여행사가 최저가로 보장합니다!

※ 후 원 O.C목사회, 중부교회협의회, 은혜와진리교회, 파이오니아여행사, 한국기독교 성지순례선교회부산지회등.,

“성경 한 구절 외우게 하기보다, 그 정신을 가르치세요”

찢어지게 가난했던 청지기 엄마의 양육 일대기

“미국 명문대 보내는 비결”을 쓴 책이 아닙니다. 그런 책은 이미 시중에 많잖아요? 저 역시 스물세 살 때 ‘엄마’가 되었고, 수많은 실수들을 저지른 평범한 여성입니다. 네 아이의 양육기이자, 엄마로 성장해 가는 이야기로 봐 주셨으면 합니다.”

〈땅에서 자라는 하늘 자녀〉의 저자 박경이 사모는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다면, 다른 엄마들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자신은 집안 형편 때문에 야간 상고를 다니며 공부에 대한 한(恨)이 남아 있었고, 남편인 임용섭 목사 역시 가난 때문에 군대를 면제받을 정도였다.

자녀 양육 때문에 미국행을 택한 것도 아니었다. 가난했지만, ‘구약을 쉽게 가르치는 학자가 되고 싶다’는 남편의 꿈을 좇아 떠난 유학길이었다. 주위 사람들은 ‘무모한 도전’, ‘똥배짱’이라고들 수군댔다.

박경이 사모는 온갖 허드렛일을 도맡아야 하면서 네 자녀를 키워야 했다. 아이가 넷이라 허드렛일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는 “남편 전도로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미국에서 신앙 훈련을 모두 받은 것 같다”고 말한다. 부모와 자녀 모두 특출한 재능이 있거나 ‘천재형’도 아니었다.

결과는 네 자녀 모두 예일과 하버드, 듀크 등 미국 명문대학 합격이었고 책의 ‘카피’도 이를 내세우고 있지만, 박 사모는 이 책을 “청지기 엄마의 생생한 양육 일대기”라고 강조한다. 부유층이나 엘리트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아니 찢어지게 가

난한 집안에서 온갖 시행착오를 견뎌가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을 ‘오직 믿음으로’ 양육해 가는 ‘악전고투기’라는 것. 그래서 사모는 “자녀들에게 뭘 어떻게 해 줘야 할지 고민하는 엄마들을 위해 책을 쓰게 됐다”고 말한다.

박 사모는 자신의 경험에 따른 방법론을 세 가지 정도로 요약했다. 먼저 ‘지식 위주’가 아닌, 지능과 성품 위주의 조기교육. 당시는 조기교육 붐이 일던 시대였는데, 관심이 없는 아이를 붙잡고 억지로 지식을 밀어넣으면 당장 효과는 거들지 몰라도, 궁극적으로 공부에 대한 흥미와 재미를 떨어뜨리고 학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엄마’로서 우려했다. 그래서 ‘놀이’를 통해 학습에 바탕이 되는 창의성과 집중력, 인내심과 끈기 등 태도와 성품을 심어주는 데 주력했다.

“아이들이 관심을 가질 때까지 기다렸더니, ‘시대에 뒤떨어졌다’, ‘계모 같다’는 소리까지 들어요. 책을 보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셋째 아이의 학습능력이 가장 느렸지만 집중력을 키워준 덕분에 나중에는 가장 두각을 나타내더라고요.” 끈기와 집중력은 공부 분량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는 때부터 위력을 발휘한다.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 어휘력과 표현력 향상도 도모했다.

신앙에 있어서도, 암기나 주입식 성경교육을 지양했다. 억지로 성경을 외우도록 하기보다는, 성경의 정신과 기독교적 삶의 태도를 가르쳤다. “크리



땅에서 자라는 하늘 자녀 박경이 | 지혜의샘 | 260쪽

스천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결국 삶의 문제라 생각했지요. 성경 한 구절을 외웠다 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두 번째는 ‘책과 친해지도록 하라’는 것이다. 박 사모는 “읽으라고 딱딱하는 게 아니라 즐기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은 자신이 고른 책을 읽지 엄마가 골라준 책을 읽지는 않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책을 들고 있더라도 책 읽는 습관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미국에서 배운 것인데, 그들은 ‘알파벳’보다 ‘나는 특별하다’는 자존감부터 먼저 가르친다고 한다. 박 사모는 “유대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뛰어난 이유도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에 있다고 한다”며 “우리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아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은 귀한 자녀’라는 자존감을 마땅히 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 가지가 방법론이라면, 그 바탕에는 ‘청지기’ 정신이 있다. “아이들이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는다면, 세상적인 방법이나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특성을 이끌어내고 발전시키는 데 주력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고 어머니로 세우셨다는 관점을 가지고 나니, 경제적인 불안과 두려움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키워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제가 한 육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박 사모는 안타깝다고 한다. “요즘 엄마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대학에 직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키운다지요? 하지만 저만 해도 형편을 따지면서 자녀들을 키웠다면, 한계가 명확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고 한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기가 막히게도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한 가지 더, ‘경쟁 사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법’도 제시했다. “이번에는 몇 등” 하면서 남을 이기는 목표보다는, ‘너 자신을 이기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나태함과 놀고 싶은 유혹, 게으름 등과 싸우라는 것이지요. 저는 애초부터 명문대라는 목표를 세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번 성적이나 수준에서 향상되는 걸 원했어요. 올 A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삶 말

입니다.” 무엇보다, 부모가 본보기가 돼야 한다고 박경이 사모는 지적했다. “결국 엄마를 따라하게 돼 있어요. 책 좀 읽으라고 말하기 전에, 책 읽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겠지요.”

그의 첫째 임경건(26)은 일리노이 수학·과학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듀크대에서 경제학과 정치학을 복수 전공한 후 하버드-컬럼비아-예일 로스쿨에 모두 합격해 예일 로스쿨을 졸업했다. 둘째 사랑(24)은 일리노이주립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교사를 맡고 있으며, 셋째 화평(23)은 케네디 대통령 모교인 조우트 로즈메리홀(사립고)을 졸업하고 예일대에서 생명의료공학을 전공했다. 넷째 승리도 일리노이주립대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남편도 총신대 신학과 및 신대원을 졸업하고, 트리니티신학대학원에서 구약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비전대로 〈하이라이프 성경〉, 〈3-3-4 성경 가이드〉 등을 펴냈다. 박경이 사모 자신은 총신대 종교교육과를 졸업하고 현재 하이패밀리 가정사역전문가, 여성행복코칭 2급 등을 획득했으며, 여러 교회 및 단체에서 강연활동을 하고 있다.

이대용 기자



저자 박경이 사모

‘긴 우회로를 돌고 돌아’ 다시 기독교로...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나는 긴 여행 끝에 인간 영혼의 문제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일게 되었다. 내가 기독교로 돌아온 것에 놀라움과 유감을 표시한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 즐거운 현실주의로 흥겹고 유쾌하고 합리적으로 세상을 포용하던 태도를 버리고, 기독교 ‘신앙’이라는 미심쩍고 형이상학적인 실체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예수의 가르침은 독자적인 범주를 형성하는데, 유일무이하고 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다른 종교에서는 볼 수 없는 가르침을 준다.”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는 〈생활의 발견〉으로 유명한, 중국의 작가이자 철학자 임어당(린위탕·林語堂)이 쓴 ‘매혹적인 기독교로의 지적 순례기’이다.

제목만 보면 ‘회심기’나 ‘간증집’ 같지만, 읽어보면 동양인이 쓴 ‘종교 비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린위탕 포이에마 | 372쪽

평서’ 같다. 22년 전 명저 〈생활의 발견〉을 통해 기독교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저자는 65세에 이르러 쓴 이 책에서, 왜 ‘긴 우회로를 돌고 돌아’ 다시 기독교로 돌아오게 됐는지 밝히고 있다. “나는 내 도덕성에 대한

직관적 지각과 중국인들이 잘 감지하는 ‘내면 깊은 곳에서 나오는 신호’에 이끌려 기독교회로 돌아왔다. 분명히 말해두지만 그 과정은 만만하지도 쉽지 않았고, 내가 오랫동안 믿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린 것도 아니다.”

저자는 유교 인본주의의 대저택에 한동안 거거했고, 도교라는 산봉우리에 올라 그 장관을 보았으며, 무시무시한 허공 위에서 흩어지는 불교의 안개를 엿본 후에야 최고봉에 해당하는 기독교 신앙에 올라 구름이 내려다보이는 햇살 가득한 세상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노자와 공자를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로, 장자를 파스칼로 각각 빗대는 등, 서양인들에게 동양 사상을 상호배타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점을 은연 중에 이야기한다.

이후에는 “우주를 정신과 물질이라

는 두 개의 분리된 구획으로 편리하게 나누면서 유럽의 지적 질병을 만든” 데카르트의 방법론과 스피노자 철학이 오히려 종교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면서, 저자는 “여러 가지 종교적 믿음과 신경과 교리가 혼란스럽게 펼쳐진 한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털어놓기가 어려웠다”고 말한다. 이처럼 유·불·선에 대한 그의 설명도 매력적이지만, 합리주의와 유클리드를 비판하는 그의 통찰은 더욱 그러하다. 저자에게 ‘예수’는 ‘장엄한 빛’이다. “모든

나라의 모든 현인과 철학자와 학자들의 세계가 촛불이라면, 예수의 세계는 햇빛이다. 눈으로 덮인 세계의 빙하 위로 하늘에 닿을 듯 우뚝 솟아오른 용프라우처럼, 직접적이고 명료하고 단순한 예수의 가르침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다른 수고를 부끄럽게 만든다.” 그는 예수만의 독창적이고도 범접하기 어려운 태도와 가르침에 마지막 장에서 경의를 표한다.

이대용 기자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깁스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여리고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로기기로 등록된 옷.**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깁스를 하지 않고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깁스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으신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재미과학자송문기 박사는
UCLA의 대학 박사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약업계에 있어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 제2형 당뇨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 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명의 당뇨병 환자나 인슐린으로 인한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 위장에 인슐린 분해를 확실하게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당뇨병 개선제입니다.

지긋지긋한 당뇨병 탈출
당뇨병을 앓고 있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 가능합니다. 새로운 당뇨병 개선제 PRO-Z를 6개월간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건강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 기능 개선제 **PRO-Z**

2병 \$120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8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적 서류 작성

714-349-8934 (한국말) 잔 안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 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미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찰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편리함을 보유한 선반 전문 회사

마켓용 Gondolas

창고용 Pallet Rack

중고 선반 대량 보유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 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ko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획기적인 절전제품/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업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 찐빵 • 고기만두 • 김치만두
• 아채만두 • 올만두 •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치과와 약,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이언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의당뇨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1.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2.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3.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4.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한 합병증을 억제해 줌
5.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원현대 칼슨 HYUNDAI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2014 SONATA GLS ALL IN STOCK @ \$22,425 Lease for \$99 PLUS TAX @ 36 MONTHS

2014 SANTA FE SPORT 2.4 ALL IN STOCK @ 26,115 Lease for \$199 PLUS TAX @ 36 MONTHS

2013 GENESIS COUPE 2.0T M/T ALL IN STOCK @ 25,490 UP TO \$5,000 OFF

2013 GENESIS Sedan 3.8 플옵션 ALL IN STOCK @ 44,385 UP TO \$10,000 OFF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2201 East 223rd St. Carson, 90810

유학생, 상사 주재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당신의 작은 손길이 이들에게겐 희망입니다”



아프리카 차드 사람들은 우물이나 수도가 없어 물을 구하기 위해 수 마일을 걸어간다. 굿네이버스는 이들이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우물파기 사업을 지속해 현재까지 200개 이상의 우물을 팠다. ©김상동 작가

김상동 작가의 사진집 “차드, 아프리카 소망을 위해 우물을 파다(Chad, Africa : Digging Wells for Hope)”를 펼쳤다. 발목만 겨우 잠기는 얇은 웅덩이에서 물을 길는 여인들, 우물에서 물이 나오자 환호하는 사람들, 황혼녘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의 뒷모습. 무심코 페이지를 넘기는데 조용하던 김 작가가 입을 연다.

“이게 이 집의 세간 전부다. 아무 것도 없다. 차드 도심을 벗어나면 대부분이 이렇게 산다.”

사막 한가운데 덩그러니 놓여있는 아주 볼품없는 흙집이다. 이리저리 흰 나무를 땅에 세워 기둥을 삼고 흙벽은 손으로 문지르면 문드러질 것 같다. 대충 나뭇가지를 엮기 설기로 만들어 놓은 천장엔 플라스틱 대야와 곡식이 놓여 있고, 시커먼 냄비도 달려 있다.

김상동 작가가 뜨거운 땅 아프리카에 두 차례나 발을 딛게 된 계기는 이렇다. “내가 갖고 있는 재능을 남을 돕는데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던 차에 굿네이버스와 연결됐다. 나의 작은 재능이 누군가를 위해 사용된다는 게 기쁘다. 사실 나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도 아니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도 아니다. 그러나 차드를 다녀오며 굿네이버스가 사람과 생명을 살리는 귀한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됐고, 이런 일을 모르던 내게 깊은 감동과 감명을 줬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차드에 가면 거의 대부분이 회교도다. 함께 기도하는 사진을 찍었는데, 회교도들은

손을 위로 들고 기도한다.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에 거부감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불신자, 이교도에게도 기독교의 사랑을 보여주는 굿네이버스의 정신이 좋았다.”

그는 2012년 11월과 2013년 11월 굿네이버스 우물파기 팀과 함께 10일간 아프리카 차드 5개 도시를 돌며 굿네이버스의 사업과 현지인들의 모습을 필름에 담았다. 지난달엔 남가주 사진

사람들을 위해 사업장을 방문해서 생활하는 모습, 현지 사람들의 표정을 중점적으로 담았다”고 말한다.

또 “차드에 처음 가서 사진을 찍을 때 눈물이 많이 났다. 다녀와서 소감을 전할 기회도 있었고, 아프리카 전시회도 했는데 그때마다 울었다. 지금도 컴퓨터로 파일을 정리하다 보면, 처음 차드를 방문했을 때 그 마음이 남아 있음을 느낀다. 과테말라는 차드처럼 낙후되진

않지만 빈부격차가 커 우리가 방문한 가정들은 차드 가정들처럼 집에 아무 것도 없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다. 재래식 아궁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질식사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김 작가는 “여행에 동행한 남가주 사진작가협회 회원들이 현지를 방문하고,

는 어린이를 봤을 때”다.

“아프리카 최빈국, 사하라 사막이 자리 잡고 있는 물부족 국가, ‘중남미 최빈국’, ‘인구의 과반수가 빈곤층’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차드와 과테말라,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삭막하고 메마른, 꿈에 커녕 생존도 장담할 수 없는 빈곤과 기근에 찌든 모습이 아닐까? 그러나 김상동 사진작가가 발견한 차드, 과테말라의 모습은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런 사진을 찍을 때는 연출 없이 현장을 있는 그대로 담는다. 심지어 찍히는 사람조차 의식하지 못한다. 사진은 ‘寫(베낄 사)’와 ‘眞(참 진)’이 결합돼 있다. 특히 이런 사진에서는 진실 그대로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극단적인 사진을 찍어 동정심을 유발하기 보다는 물 길는 아낙네의 모습을 아름답게 표현한 사진처럼 생활상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려 한다. 추한 모습보다는 그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아 보여주고 싶다.”

김 실장은 “굿네이버스 안에 윤리가 있다. 그 윤리를 지키면서 사진에 동의를 다 구하고 찍는다”고 덧붙였다.

“조만간 과테말라 사진전을 열고 10월 말에 차드에 갈 계획이다. 계속하던 일을 하려 한다. 앞으로 사진을 통해 굿네이버스의 사업도 계속 도우려 한다”는 김상동 작가는 “기회가 된다면 현장에 가서 보는 것을 권하고 싶다”며 말을 마쳤다.

후원신청 : 877-499-9898
www.goodneighbors.com
주디 한 기자

김상동 작가, 기근과 빈곤 속에서도 아름다움 포착

굿네이버스 다양한 재능 기부로 협력 가능해

작가 7명과 함께 7박 8일간 과테말라의 굿네이버스 사업장과 현지 가정을 방문해 굿네이버스 사업과 현지 생활상도 찍었다.

그는 “아직도 처음 차드에서 본 어린이의 눈동자가 잊혀지지 않는다. 호수처럼 맑고 투명한 눈동자에서 희망을 봤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줄 수 있다면 그들이 금방 살아날 수 있다. 그곳에 가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살아 온 방식을 다시 생각하게 됐다. 너무 호사스럽게 살아왔고 살고 있고 있구나. 모두 비슷한 느낌을 받을 것이다. 가만 고생이지만 보람되다”고 여행의 소감을 전했다. 그는 이번 여행에서 “관심이 있지만 현지 방문이 어려운

않았지만 빈부격차가 커 우리가 방문한 가정들은 차드 가정들처럼 집에 아무 것도 없어 바닥에 앉아 식사를 했다. 재래식 아궁이에서 나오는 유독가스로 질식사 하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굿네이버스USA 김재학 실장은 “과테말라시에는 맥도널드와 월마트도 있고 편하게 사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벗어나면 극빈층이 많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재능기부에 관해 “미국에는 사진 작가, 영상 작가들이 있다. 한국에는 번역, 캘리그래피(calligraphy, 독창적인 손글씨), 캐릭터 그리기 등 다양한 재능을 통해 굿네이버스 재능기부에 참여하는 이가 많다. 미국에서 지속적

현지인을 만난 후 굉장한 느낌을 받아 자발적으로 쿡스토브(Cook stove,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과테말라의 재래식 아궁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굿네이버스가 실행하고 있는 적정기술 사업)를 후원하기로 했다. 현재 12개 후원 기금이 걸렸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LA중앙일보, 세리토스의 린제이갤러리(Lynn J. Gallery), 엘바인 시청에서 차드 우물파기 현장과 현지인의 실생활을 담은 사진 전시회를 열어 우물파기 기금도 모금했다.

여행 중 가장 기뻐던 순간으로 ‘우물을 파던 중 물이 처음 나왔을 때’를 꼽는 김 작가가 기억하는 가슴 아팠던 순간은 ‘황톳물을 아무렇지 않게 떠 마시



한 과테말라 소녀의 모습 ©김상동 작가



과테말라의 어린이들. 이 어린이들에게엔 누군가의 작은 도움이 큰 희망이 된다. ©김상동 작가



과테말라 현지 가정의 식사 모습. 식탁 같은 가장 기본적인 가구조차 찾아 보기 힘들다. ©김상동 작가



굿네이버스는 재래식 아궁이를 대체할 쿡스토브를 설치해 주는 사업을 통해 과테말라의 빈곤 가정들을 돕고 있다. ©김상동 작가



차드의 흙집. 빗물과 바람에 조금씩 허물어져 가는 낡은 집이 이들이 가진 전 재산이다. ©김상동 작가



과테말라를 방문한 남가주사진작가협회 회원들(왼쪽부터 오유경, 김상동, 윤진구, 이해정, 신근호, 신현렌, 김재학, 서치원. 사진촬영: 백영규)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PH Puente Hills Hyundai Special Event

NEW



ALL NEW 2015 GENESIS SEDAN

새로운 디자인의 2015년형 제네시스 세단이 입고되었습니다. 푸엔테힐스 현대 딜러 쇼룸에서 만나보세요!

-자세한 사항은 딜러에게 문의하세요-

NEW



2014 HYUNDAI SONATA GLS

\$89 ^{+TAX} **36** Mon.

MSRP: \$22,350. 36 month lease. After \$2,999 due at leasing + \$750 lease cash + \$500 Valued owner coupon + \$500 Military Rebate + \$400 College grad rebate.

NEW 2013 EQUUS SIGNATURE (DEMO)

PURCHASE FOR AS LOW AS

\$45,170 ^{+FEES}

Stock# DU070328, DU069919 MSRP: \$60,170

SAVE UP TO **\$15,000**



NEW

HYUNDAI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HYUNDAI Assurance



스티브 강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www.phhyundai.com

